

월간 가든인 7월호

July 2016

Gardenin

특집
기사

강동 친환경 도시농업박람회



Gardenin Maintenance

정원사의 일기 / 관상정원, 텃밭정원
생활 속의 도시농업 / 7월 식물관리



Gardenin Plants

산타벨라가 들려주는 화초이야기 / 제라늄 키우기
Special Issue / 절화로도 이용가능한 우리의 정원식물



Gardenin Culture

정원속의 식용꽃 / 원추리
허브&아로마테라피 / 모기퇴치에 좋은 에센셜오일



Gardenin Design

칼럼 / 암석, 옥상 등 극건조 대표식물, 세덤류의 적절한 적용
정원으로의 여행 / 정원과 어울리는 건축물들



대사초 골든라이트



Gardenin Information

GARDEN & BOOK / 가든디자이너, 꽃은 많을수록 좋다.

ISSN 2288-1719



9 772288 171000

10,000원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업'

종자 종묘 대표기업

물품을 판매하는 기업은 많지만, 같은 가격으로
물품, 기술, 노하우를 함께 판매하는 기업은
CZ입니다.

종자	꽃묘	프러그	구근	조경용 수목
일반초화 종자 다년생초화 종자 야생화 종자 채소 종자 등	일반초화 꽃묘 다년생초화 꽃묘 야생화 꽃묘 등	일반초화 프러그 다년생초화 프러그 야생화 프러그 삼수 프러그 등	춘식구근 추식구근 등	연산홍 자산홍 남천 등



대표전화 031-444-1488
팩스 031-444-1477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67 3층
홈페이지 www.czcorp.co.kr / 쇼핑몰 www.czmart.co.kr

CONTENTS

4 이 달의 포커스 - 박스정원

Gardenin Maintenance

- 6 정원사의 일기 - 관상정원, 텃밭정원
- 10 가든엔씨앗 - 야외에서 파종하는 방법, 금계국
- 14 생활 속의 도시농업 - 7월 식물관리

Gardenin Plant

- 18 산타벨라가 들려주는 화초이야기 - 제라늄 키우기
- 22 정원 속 보이네 - 이질풀, 뽕무, 길레니아
- 26 Special Issue - 절화로도 이용가능한 우리의 정원식물
- 32 관목시대 - 산수국
- 34 이명호의 야생화 - 매꽃
- 38 테마가 있는 식물이야기 - 무늬동굴레, 무늬창포, 패랭이 쿠션, 에버그لد, 총꽃, 민트
- 42 정원화로 좋은 우리야생화 - 분홍비늘꽃
- 46 서봄, 정원식물 나들이 - 꽃백합

Gardenin Culture

- 48 특집 - 제 6회 강동 친환경 도시농업박람회
- 50 오경아의 속초 정원 이야기 - 뜨겁거나 한가롭거나!
- 53 정원의 식용 꽃 - 원추리
- 54 허브&아로마테라피 - 모기퇴치에 좋은 에센셜오일
- 56 정원을 꿈꾸는 사람들 - 파주, 정원 맑음
- 60 힐링원에 - 물이 있는 정원이야기
- 62 식물원탐방 - 상수 허브랜드

Gardenin Design

- 64 칼럼 - 암석, 옥상 등 극건조 대표식물, 세덤류의 적절한 적용
- 68 정원으로의 여행 - 정원과 어울리는 건축물들
- 72 실내정원의 크래프트 - 패션풍기와 술방울을 이용한 양치식물 장식물
- 74 COLOR IN THE GARDEN - Silver Flowers

Gardenin Information

- 78 정원식물 따라잡기 - 양치 식물
- 80 가든인 생생정보 - 절경이, 텃밭 작물관리 요령
- 81 GARDEN & BOOK - 가든디자이너, 꽃은 많을수록 좋다.



박스정원

도시의 콘크리트 위에는 일반적으로 원형화분을 이용하여 꽃을 디스플레이 해왔다. 화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충분하지만 연속적으로 연결해서 디자인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면에서 사각형태의 박스정원은 연결이 가능하므로 도심광장, 행사장, 옥상 등 콘크리트 위에 쉽게 원하는 정원을 연출할 수 있다. 박스정원을 이용한 여러 테마정원을 따라가보자.



암석정원



관목정원



그라스정원



호스타정원



야생화혼합정원



뫼발정원



길라정원



향기정원

정원사의 일기
(Gardener's Diary)정원의
아름다움과
맛...

가드너 김시용

전 천리포수목원 근무
영국 The Sir Harold Hillier Garden 연수
영국 RHS Garden, Wisley Diploma in Practical Horticulture Programme 졸업

7월을 아름답게 하는 식물 - 가우라

관상정원

정원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은 온전히 보는 사람의 눈과 마음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하나의 식물을 세밀히 관찰하고 주변에 있는 식물, 구조물, 돌 등과 어울림을 보는 눈을 필요로 한다. 처음부터 그러한 눈이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식물 하나를 세밀히 관찰하는 연습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세밀하게 보는 연습은 식물의 한 시점을 벗어나 4계절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다. 그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언제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어떤 식물과 어울리는지를 계속해서 관찰하는 것이다. 자기만의 공간이 있다면 심어보고 길러보고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다. 식물의 위치를 잡을 때 어떤 토양과 빛과 온도에서 자라는지를 알고 난 후에 그 식물들이 조화로인지 아닌지를 생각해보고 그 조화로움을 찾을 때 까지 계속해서 옮겨심기를 할 수 있다. 옮겨심기를 할 때는 비소식이 있는 전날 하는 것이 좋다. 조화로움을 찾았다면 그 어울림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 왜 어울리는지... 그 어울림을 찾는 이들을 나는 존경하고 벗이라고 부르고 싶다. 어울림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해야 하고 그 기본은 식물심기이기에 에머슨의 말처럼 지구를 옷게 하는 일이다. 지구를 옷게 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장 지오노의 나무를 심는 사람에 나오는 엘제아르 부피에처럼 열심히 묵묵히 나무를 심는 것이다. 지구의 환경을 좋게하는 우아하고 고상한 아주 멋진 일이다. 엘제아르 부피에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만 공간 어디에든 식물을 심는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고 나를 치유하는 일이다.



7월을 아름답게 하는 식물 - 수레국화 꽃양귀비 개모마일



7월을 아름답게 하는 식물 - 에쿠니시아

7월을 아름답게 하는 식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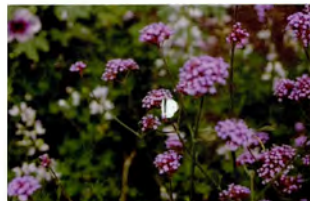
Achillea millefolium 'Aptelblute'



Agapanthus 'Oslo'



Picea pungens 'Glauca'



Berberis bonariensis



Crocosmia 'Croesus'



Hakonechloa macra 'Alboaura'



Abelia X grandiflora 'Sherwoodii'



꽃양귀비와 우단동자꽃



Agapanthus 'Silver Jubilee'



Kniphofia 'David'



Hemerocallis 'Stafford'



사위질방



리아트리스



Astilbe 'Montgomery'



Epilobium hirsutum 'Album'

텃밭정원

텃밭정원을 유기적으로 재배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돌려짓기, 녹비(토양의 화학적 성분을 보충하는 식물), 섞어짓기를 잘 알아야 한다. 즉,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을 어떻게 좋게 할지 그리고 병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할지를 알면 즐거운 텃밭농사를 지을 수 있다. 토양 병해를 방지하거나 토양 내 생물상을 좋게 하는 식물종을 소개하고자 한다.

텃밭정원 섞어짓기 허브

바질

과명 : 꿀풀과

학명 : *Ocimum basilicum*

영명 : sweet basil

한해살이 식물로 초록색잎이 상쾌하게 보이며, 작은 흰 꽃이 여름에 핀다.

요리에 주로 이용하며 스파게티에 넣거나 바질 페스토를 만들어 빵에 발라 먹는다. 토마토와 섞어짓기 하면 온실가루병을 억제할 수 있다.



레몬밤

과명 : 꿀풀과

학명 : *Melissa officinalis*

영명 : Lemon balm

속근초로 자라는 레몬밤은 무성하게 자라고 흰색에서 옅은 노랑색의 꽃이 여름에 핀다. 잎에서는 레몬 향기가 난다. 내한성이 강해서 노지에서 겨울을 지낼 수 있다. 말린 잎을 차로 마시며, 수면장애, 강장효과가 있다. 또한 여름철 모기 물린 곳을 비벼서 발라주면 가려움증이 금방 사라진다.



마조람

과명 : 꿀풀과

학명 : *Origanum majorana*

영명 : Marjoram

속근초로 자라는 마조람은 흰색에서 분홍색의 꽃이 늦은 여름에 핀다. 짙은 향기가 나며 목욕제, 요리로 사용하고 진정효과가 뛰어나 차로 마신다. 살균작용이 있어 요리에 사용하면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게 도와주는 효과가 있다.



오레가노

과명 : 꿀풀과

학명 : *Origanum vulgare*

영명 : Oregano

속근초로 자라는 오레가노는 무성하게 자라고 작은 분홍색의 꽃이 여름에서 이른 가을에 핀다. 말린 잎을 차로 마시며, 소화기관, 순환계, 편두통과 우울증에 좋다.



백리향

과명 : 꿀풀과

학명 : *Thymus vulgaris*

영명 : Thyme

아주 작은 나무의 형태로 자라며 잎에서 강한 향기가 나고 작은 흰색 또는 분홍색의 꽃이 늦은 봄에서 이른 여름에 핀다.

식물전체를 이용하면 피부질환과 이노작용, 충치 구취에 효과가 있다.



차이브

과명 : 백합과

학명 : *Allium schoenoprasum*

영명 : Chives

속근성 구근으로 자라고 잎을 만지면 다른 허브처럼 향기가 나며, 자주색 꽃이 여름에 핀다. 섞어짓기 식물로 이용할 수 있다. 허브 토스트를 만들 때 먹을 때 좋은 허브가 된다.



메리골드

과명 : 국화과

학명 : *Tagetes spp.*

영명 : Marigold

'서광'으로도 알려져 있는 메리골드는 서리 지난 후에 텃밭에 심는 대표적인 혼작식물이다. 원예종에 따라서 노랑색 주황색 또는 두 색이 섞여있는 꽃이 여름에서 이른 가을까지 핀다. 이 식물을 텃밭에 심으면 병충해를 방지하고 아름다운 꽃을 볼 수 있다. 또한 염료재로 이용할 수도 있고, 꽃을 말려 차로 이용하는데 주된 효능은 감기, 피로회복에 좋다.



한련화

과명 : 한련과

학명 : *Trapaeolum majus*

영명 : Nasturtium

한해살이 식물로 잎 모양이 연의 잎을 닮았다. 꽃색은 노랑색, 주황색, 빨강색, 혼합색으로 다양하며, 꽃피는 기간 또한 더운 여름을 제외하고는 오랫동안 핀다. 식물체 전체를 식용할 수 있고, 약간 매운 맛이 난다. 기관지염이나 근육통에 사용한다.



가든엔 씨앗

가정에서 식물을 키우는 방법으로는 씨앗을 구매하여 파종해서 기르는 방법과 묘종을 직접 사와서 화분이나 정원에 식재를 하는 방법을 선택한다. 특히 씨앗으로 파종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이 쉬운 것 같아도 초보 자들은 막상해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신설된 '가든엔씨앗' 코너에서는 씨앗의 발아, 파종방법, 보관 등 일반적인 씨앗부리기에 관한 내용들과 씨앗으로 재배가 가능한 꽃들을 매월 1품목씩 묶어서 소개하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그림 박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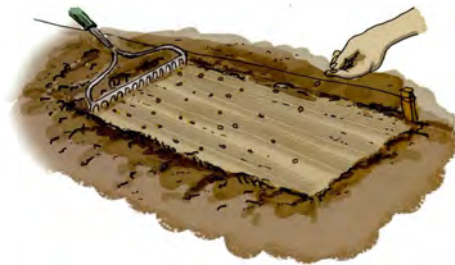
1. 야외에서 파종하는 단계별 방법

야외에서 자라는 씨앗들은 실내에서 자라는 씨앗들과 비슷한 조건들을 필요로 한다.(따뜻한 토양, 빛이나 어둠(경우에 따라), 지속적인 수분 공급) 씨앗들은 따뜻한 토양에서 가장 발아를 잘하게 된다. 그러나 극심한 더위의 열기는 대부분의 씨앗들에게는 좋지 않다. 만약 여름에 심는다면, 모판에 약간의 그늘을 제공하고 주고 마르지 않도록 자주 물을 주도록 한다.



땅고르기

① 지면을 세심하게 경작하고 비료나 유기농 물질을 준다. 모든 잡초와 풀을 제거한 다음 갈퀴를 써서 지면의 높이를 균등하게 다듬는다.



씨부리기

② 작은 씨앗들을 가능한 넓게 파종하고 이후에 숨여내기를 계획한다. 그림이 보여주는 것은 흙부리기라고 알려져 있는 방법인데 이것은 전체 표면에 씨를 뿌리는 것이다. 더 큰 씨들은 고랑을 따라서 간격에 맞춰 떨어뜨릴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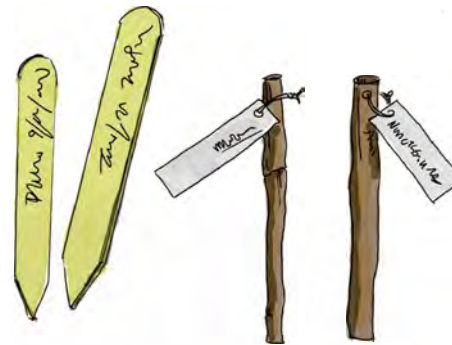
물주기

③ 씨앗들을 새로운 지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물뿌리개를 사용한다. 발아가 될때까지 계속해서 수분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식물이 자라게 되면 점차적으로 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다.



퍼주기

④ 씨앗들은 파종 후 살짝 흙으로 덮는다. 아주 작은 씨앗들은 덮지 않은 채로 두거나, 만약 발아할 때 어둠이 필요하다면 약간 깊게 덮어준다. 씨와 토양을 밀접하게 접촉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팬의 뒷면으로 부드럽게 흙을 다져주면 좋다.



표찰

⑤ 막대기에 라벨을 붙여서 어디에 무엇을 심었는지 알 수 있게 한다. 라벨에는 식물의 타입, 품종, 파종한 날짜, 수확하는 시기, 관련된 항목을 적도록 한다.

GardenIn TIP

>> 파종할 곳 사전정리 작업

- 만약 파종할 곳을 굽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한다면, 흙에 공기가 잘 통하게 만들고 다듬기 위해서 경작 도구를 사용한다.
- 만약 지면이 상대적으로 작고 토양이 너무 거칠다면 삽을 이용해 손으로 작업한다.
- 토양을 개량하기 위해서 퇴비, 천연비료, 부엽토, 초단이나 몇몇 유기농 물질로 된 것들을 이용한다. 펄라이트나 질석은 일반적으로 야외의 토양과는 잘 섞이지 않는다. 물 보유가 용기 안에 있을 때만큼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 토양은 소독할 필요가 없다. 잡초는 가능한 화학 제초제를 쓰는것보다는 손으로 뽑는 것이 좋다.
- 만약 이미 만들어진 화단에 파종을 한다면 (가령, 다년생 화단에 한해살이 식물의 씨를 뿌릴 경우)지면에 갈고리나 모종삽을 이용해서 고르게 만들어준다. 이미 심겨진 식물 뿌리 주위에 흙을 파지 않도록 한다. 지면은 발아에 충분하고 공기가 잘 들어올 정도로만 경작을 한다.

GardenIn TIP

>> 파종을 쉽게 하는 방법

- 만약 채소를 파종 한다면, 파종하는 장소 끝 중 한곳에 말뚝을 두드리서 똑바른 선을 표시하고 한 말뚝에서 다른 말뚝으로 줄을 연결한다. 그런 다음 팬의 모서리로 만든 줄을 따라 얇은 고랑을 만든다.
- 야채의 씨를 파종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한 줄 보다는 한 무리로 심는 방법이 있다. 높은 호박이나 덩굴 식물들, 옥수수는 보통 한 무리로 심어진다. 이런 방식으로 파종을 하면 작은 공간에서 많은 식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작은 꽃의 씨앗들은 간단히 토양 전체에 흩뿌릴 수 있다. 만약 꽃의 씨앗들이 더 크다면, 손가락이나 도구를 가지고 작은 자국을 만들고 한, 두개의 씨를 떨어뜨린다. 이를 점파라고 하기도 한다.

2. 금계국(Coreopsis)

금계국은 곤충에 의해 타가수분되는 식물이라서 씨앗 보관을 위해 특정 품종의 순수계통을 원한다면 한 번에 한 품종만 기른다. 씨앗들은 꽃이 지고 4주가 지난 후에 수확할 준비가 된다. 그러나 한번에 모든 씨가 다 익는 것은 아니라서 계속적으로 잘 관찰해서 익는 순서대로 각각 따로 수확해야 될 것이다. 씨가 익은 후 며칠만 지나면 흩어지기 때문에 시기가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씨를 다 잃을 수 있다.



금계국



금계국 씨앗



금계국 별무늬



금계국 왜성사계



무늬금계국

GardenIn TIP

- 씨앗은 가을에 신선한 상태에서 파종되었을 때 가장 잘 발아한다.

금계국 씨앗정보

- 발아를 위한 최적 온도 : 22~28도
- 식재간격 : 왜성종은 15~25cm 간격, 큰 품종은 30~40cm 간격
- 파종깊이 : 살짝 흙으로 덮어주고 토양표면을 가볍게 눌러준다.
- 최적온도에서 발아 시기 : 파종 후 7일~14일
- 씨앗 저장 조건 : 서늘하고 어둡고 건조한 곳

씨 수확하기

1. 줄기를 자르고 씨앗 꼬투리에서 씨앗을 손으로 제거한다. 걸쭉질을 걸러내고(양이 많을 것이다.) 저장하기 전에 씨앗을 1주정도 건조시킨다.
2. 만약 봄에 파종할 경우, 건조한 씨앗을 냉장고에 보관한다.



실외파종

수확한 신선한 씨를 가을에 야외에서 파종한다.

실내파종

1. 금계국은 봄의 마지막 서리 6~8주전에 실내에서 욕조에 파종한다.
2. 2~3개의 떡잎이 자라기 시작하면 묘목을 더 큰 각각의 화분에 옮겨 심는다. 금계국 묘종은 빨리 자라서 파종한 후 3주가 되면 옮겨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옮겨심기를 할 때 잎들을 젖은 흙에 남겨놓지 않도록 한다. 이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
3. 마지막 봄 서리 이후에 뿌리가 화분을 채우게 되면 어린 식물들을 야외로 옮긴다.



트레이에 육묘되고 있는 금계국 플러그묘



포트에 이식되어 자라고 있는 묘종

가든스쿨-오로라라(oro.LaLa)의

가든(정원)스케치(제안서)실무과정

매월 첫 주 제강 / 경복궁: 화.수(야) 안양-목금(주.야)-8주/16강

가든(정원)디자인(설계)전문가과정

정교과정 (상반기(4월), 하반기(9월))-12주 16강



-오로라라/경기정원조경학원/도시정원아인

-강의장소: 서촌고육장(경복궁역)/안양본원(명학역) 수강문의: 031-466-0901

7월 식물 관리

생활속의 도시농업

글 사진 정미나 건국대학교 이학박사
정원미화나농회 (사)도시농업포럼 교육, 출판부위원 한국의 정원 식물-초본류, 텃밭정원활용북 101 저자

여름이 와 잡초와의 전쟁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잡초를 재활용하며 키워야 합니다. 잡초를 뽑지만 뽑은 잡초를 멀칭으로 재활용하고 액비 및 병충해 예방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관초를 설텍1대 1로 하여 천혜녹즙을 만들어 이용하면 탄저병이나 잎 오갈병에 효과가 있습니다. 취꽃과 아까시나무꽃을 설텍 1대 1로 천혜녹즙을 만들면 열매 맺는데 효과가 있고 쑥과 미나리를 천혜녹즙을 만들어 주면 액비가 됩니다. 질경이나 고들빼기, 쑥바귀는 나물이나 김치로도 만들어 먹습니다. 여름에는 쌈채소를 갈무리하고 가을에 심을 준비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강동구 고덕동 공동체텃밭

2014년 7월 6일



2014년 7월 13일



2014년 7월 24일



2014년 7월 31일



2015년 7월 3일



동만지(대지감자)



아욱



아주 자라는 모습



참외



자색 클라비



비트



다일리아



로만캐모마일



바질



기생초



찰토마토



바질과 초화류



가지



상추와 봉선화



비트와 치커리



대파



썩갓



옥수수



오이



도라지



클라비



고구마



자색양배추



오크라

2015년 7월 17일



오이



도라지



클라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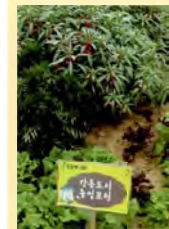
고구마



자색양배추



오크라



상추와 봉선화



맨드라미



찰토마토



방울토마토



고추



가지

2015년 7월 3일



아콘



들깨



상추 추대



당근



봉선화



토마토

2014년 7월 27일 월계동 옥상 수확 및 화분 재배 모습들



열무



여주



망초와 개망초 천혜녹즙 만들기

1. 인적이 드문 곳에서 망초나 개망초를 채취한다.
2. 이물질을 제거하고 다듬는다.
3. 망초와 개망초의 무게 1kg이면 설탕 무게도 1kg이다.
4. 항아리에 먼저 설탕 넣고 망초와 개망초를 넣고 한지로 덮는다.



5. 그늘에 놓고 2~3주 양파 밑에 망초와 개망초 천혜녹즙을 넣어 녹즙을 만든다.



6. 깔대기로 녹즙을 피트병에 담는다.



7. 탄저병이나 오갈병 걸리기 쉬운 채소에 1000배액으로 뿌려준다.

산타벨라가 들려주는 화초이야기

제라늄의 꽃과 잎에서 풍기는 강한 향이 너무 역해서 싫다고 하는 사람이 많지요.
(저는 마음을 톡~ 쏘는 것 같은 시원한 향기로 느껴져서 정말 좋아합니다만.)
그런데 이 독특한 향기가 모기를 쫓아준다는 거, 아시나요? 제라늄 중에서도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는 녀석은 바로 '구문초(물 구(鵲), 모기 문(蚊), 풀 초(草)). 모기를 몰아내는 식물
이라는 뜻의 구문초는 '로즈 제라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움직이는 모기장,

글/사진 성금미 네이버 파워블로거
[저자 : 산타벨라처럼 쉽게 화초키우기] <http://blog.naver.com/santabella>

제라늄 키우기



로즈 제라늄의 꽃과 잎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잎에서 향기로운 '장미향'이 나는 녀석이에요.
사람이 맡으면 아름다운 이 향기를 모기란 녀석들은 너무나 싫어
해서 절대로 가까이 오지 못한다고 해요. 하지만! 로즈제라늄 뿐만
이 아니라, 대부분의 제라늄 종류는 모기를 쫓아주는 효과가 있지요.

외국의 멋진 풍경을 담은 사진을 보면, 집집마다 건물마다 창가를 풍
성한 꽃으로 장식한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꽃을 좋
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보다 더 큰 이유는 꽃을 이용한
'방충망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해요. 그 중에서도 어딜 가나 가장 흔하
게 볼 수 있는 꽃이 바로 '제라늄'입니다.



잎 사이로 늘어난 꽃대가 올라와 끝부분에서 둥근 꽃봉을 만드는 제라
늄. 여러 개의 꽃송이가 한데 뭉친 모습은 정말 예쁘답니다 ~

가죽 칠했, 색깔 다양해, 어지간한 병충해에도 강하고, 환경에 따라 생육 조
절도 잘하고, 조건만 맞으면 일 년 내내 꽃이 피는 기특한 녀석.
한마디로 말해, 별 말 없이 쑥쑥~ 무럭무럭 잘 크는, 화초 키우기 애호가들
이 원하는 아주 바람직한 성격의 소유자, 제라늄.
그 뿐만이 아닙니다.
제라늄은 번식도 아주 잘 되는 녀석인데요.
쪼갬이(삽목법)라는 간단한 방법으로 많은 식구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번식법을 알려드릴게요, 잘 기억해 두었다가 꼭 시도해 보세요.

제라늄
키우기

《준비물》
가위, 물, 흙(배양토 또는 모래흙), 화분



1

너무 가는 줄기는 말고 튼튼하고
굵은 줄기를 선택하세요.



2

가위로 줄기의 아랫부분을 자르니
다.



3

잘라낸 모습.



4

줄기 위쪽의 잎을 3~4장 정도 남
기고



아랫부분의 잎은 떼어 줍니다.

손질이 끝난 모습.

물속에 1시간 가량 담가 물올리기를 해주고

상토(또는 모래흙)가 담긴 화분에 심어주세요

물이 화분의 밑구멍으로 빠져나올 때까지 흠뻑 준 다음

햇빛과 바람이 직접 닿지 않는 곳에 둡니다.

시간이 가면서 누런 잎이 생기기도 하는데 떼어 주면 돼요. 물주기 간식(다름) 이렇게 일도 무성해지는 걸흠이 많았다 심을 때 흠뻑 주시고요.

약 3개월 쯤 뒤면(환경에 따라 약 2개월) 이렇게 일도 무성해지는 걸흠이 많았다 심을 때 흠뻑 주고 예쁜 꽃도 피어납니다.

제라늄의 여름철 관리 방법

봄날의 환희를 느끼게 하던 제라늄들이 여름이 되면서 여기저기서 픽픽 쓰러지며 제라늄 애호가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기는 이 때. 산타벨라가 나섰습니다. 제라늄의 여름철 관리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 여름은 일년 중 제라늄에게 가장 힘든 시기입니다. 높은 기온도 그렇고 지나치게 높은 습도가 녀석에게는 거의 최악이기 때문이지요. 너무 덥고 너무 습해서 제라늄이 잠시 성장을 멈추기도 하는 때이고요. 햇빛 부족으로 인해 화려하던 봄날의 꽃들이 하나 둘 색 지취를 감추고... 푸르데데한 잎들만 삼겹살을 싸먹으면 좋겠다 심을 만큼 크고 넓적해지는 때. 흙, 잎, 꽃잎에 번지는 줄기썩음병(=부리썩음병, Pythium Root Rot & Blackleg)과 회색곰팡이병(gray mold=잿빛곰팡이병, Botrytis)이 특히 원수.

자, 제라늄의 여름철 살아남기 대작전!!! 보실까요?

<1> 질병에 대한 예방과 대책

A. 줄기썩음병(=부리썩음병)



줄기썩음병의 증세가 이렇습니다.

줄기가 검게 변하면서 만지면 물렁하고 진한 액체가 흘러나오지요. 냄새도 나고요. 극히 일부분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더라도 사실은 식물체 전체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할 수 없이 버려야 돼요. 심었던 흙도 함께 버리는게 안전하고요. 심었던 화분은 흙을 제거하고 락스를 진하게 푼 물에 1시간 가량 담갔다 밀려서 다시 씹니다. 비가 자주 내리고 습도가 높은 조건에서 창궐하게 되는 이 병은 제라늄의 생존에 치명적인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1. **약제로 미리 예방** - 5월부터 9월까지 2주일에 한 번 다이센엠을 살포한다. 잎과 줄기에는 스프레이하고 물을 줄때 함께 쥘서 부리에 달도록 한다.
2. **통풍의 중요성** - 실외에서 키우는 제라늄의 경우에는 위의 병이 거의 걸리지 않는다.

밖에서는 통풍이 잘되기 때문. 그럼, 실내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 a. 여러 개 화분을 가까이 두지 말고 사이사이의 공간을 확보할 것.
- b. 잎이 무성한 부분(특히, 부리에 가까운 부분)은 잎을 적당히 솎아낼 것(아래사진처럼)



B. 회색곰팡이병(=잿빛곰팡이병)

이 병은 제라늄의 잎, 줄기, 꽃잎, 부리에 걸쳐 부분적으로 회색(잿빛) 곰팡이가 생기는 증세입니다. 제라늄은 다른 식물에 비해 곰팡이에 약한 식물로 시든 잎이 떨어져 곰팡이가 생기면 식물체 전체로 번지기 십상이예요. **예방법**은? 시든 잎(꽃잎 포함)은 바로바로 처리합니다. 시든 채로 줄기에 붙어 있거나 흙 위로 떨어진 잎파리와 꽃잎은 그때마다 얼른 제거하세요.



<2> 물주기

제일 중요합니다.

제라늄을 다육식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정도로 건조에 강한 식물이지요. 평소 제라늄의 물주는 화분의 흙이 말랐을 때 주는 것이지만 여름철에는 화분의 흙이 마르다 못해 흠뻑 날릴 정도로 되었을 때 줍니다. 꽃이 많이 피는 계절에 물을 적게 주면 꽃이 피는데 지장이 있지만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제라늄의 휴면기이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의 경우, 제라늄의 여름철 물주는 화분의 흙이 모두 바싹 말랐을 때가 아니라 흙이 바싹 마르고 나서도 한참 지나서 줍니다.

'과습이 제일 문제라고? 그렇다면 물을 조금씩 주면 될 거 아니냐.'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물을 주는 횟수나 양이 아니라 흙의 건조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화분의 흙이 바싹 말랐을 때 한 번에 흠뻑 주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조금씩 찜찜찜 찜지 마세요!**

손가락의 두 마디 정도를 흙에 넣어보아 보송보송 말랐다고 느껴질 때 물을 주세요. 초보라면, 제라늄 잎이 살짝 처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는 것도 좋은데, 너무 오랫동안 물을 굶기면 잔뿌리가 말라버리므로 조심해야 해요. 비가 오는 날은 물을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습도가 높아 화분 속흙의 수분이 더디게 마르기 때문이지요. 하루 중 온도가 가장 높은 시간을 피해 아침이나 저녁 때 물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3> 햇빛 쪼이기

실내에 해가 들지 않는 여름철의 경우,

제라늄의 잎은 특유의 주름이 없어지고 잎의 크기도 호박잎처럼 커집니다. 잎에 무늬가 있는 제라늄의 경우에는 현저하게 무늬가 흐려지기도 하고요. 이러한 증세 모두가 햇빛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도 그렇지만) 제라늄 화분을 집안의 가장 밝은 곳에 두세요. 가을이 되어 해가 많이 들어오면 제라늄 본래의 예쁜 새잎이 돋아나니 이 점은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4> 영양제

비료는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가득이나 덥고 습해서 쭈뼌 주고 있는데 더 잘 자라라고 비료를 주면 제라늄이 미치지 않을까요? 이때 비료를 잘못 주면 제라늄은 죽습니다. 부리와 줄기가 썩어버리거나. 자, 위와 같은 원칙을 꼭꼭 지켜서 제라늄 키우기에 실패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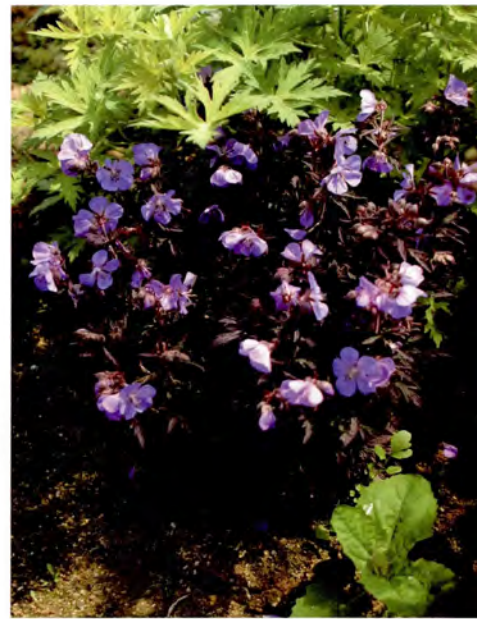


천의 색상과 다양한 미의 기준

이질풀 속(Genus Geranium)

일년생, 이년생 그리고 초본, 반상록성, 상록성 식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배하는 종들은 대부분 페라곤니움(*Genus Pelargonium*)속이지만 *Geranium*으로 잘못 알려져 있다. 처음 린네가 이 두 속을 하나의 속으로 보아 제라니움속(*Genus Geranium*)이라 분류한데서 비롯된 혼란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따라서 쉽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꽃잎과 열매를 보면 되는데 우리의 야산에 있는 이질풀 혹은 쥐손이풀과 같이 잎이 꽃잎이 방사대칭이고 5개의 씨앗이 정확한 대칭을 이루면서 활과 같은 스프링형태를 하는 것과 다섯 장의 꽃잎이 정확한 대칭을 이루지 않으면서 대체로 위로 2장과 아래로 3장의 꽃잎으로 분리되는 종류로 구분 가능하다. 좀 더 쉬운 방법은 우리가 제라늄이라고 부르며 원예용으로 재배하는 식물은 대부분 페라곤니움이고 한국에서 들이나 산에서 볼 수 있는 이질풀은 제라늄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리고 잎에서 향이 강하게 나오는 것이 대체로 페라곤니움이다. 제라늄 속은 덩이줄기를 이루는 다년생 식물의 300여 종의 속으로 *G. cranesbills*은 온대지역의 아주 습한 서식지를 제외한 전역에서 발견된다. 동글거나 5개의 뾰족한 끝모양의 잎은 손바닥 모양으로 갈라져 있고 길라짐은 더 길거나 톱니형인 잎은 종종 향이 나거나 눈에 띄게 두드러지고 거친 질감을 갖는다. 잎에 약간의 무늬가 있을 수 있으며 대체로 가을 단풍이 아름답다. 기저엽은 자유롭게 배열되어 있으며, 때때로 겨울을 나거나 반상록성 로제트이고 꽃은 흰색, 분홍, 보라나 파란색으로 꽃잎과 함께 발침접시 모양이거나 간혹 납작하거나

별모양이고 꽃잎이 뒤로 젖혀 있거나 가끔 눈에 띄게 두드러지거나 대칭적인 무늬가 있고 이들은 퍼지거나 밀집된 취산꽃차례나 산형화서나 원추꽃차례 같은 꽃차례로 핀다. *G. cranesbills*는 일반적으로 수명이 길고, 재배가 쉽다. 15cm 정도의 작은 키에 조밀한 다년생 품종은 암석정원에 좋고, 길게 뻗고 확산하거나 매트를 형성하는 식물은 삼림지나 야생화 온실이나 삼림지의 지표식물로 효과적이다. 키가 크고 덩어리를 형성하는 종과 교배종은 화단의 가장자리나 관목사이에서 적합하다. 내한성은 종류에 따라 다양하며 대체로 내한성은 좋다. 정원에서는 키 큰 교배종이 태양아래나 그늘이 조금 진 곳에서 적당히 비옥하고 배수가 잘되는 토양을 좋아하고 물에 잠기지 않는 한 잘 자란다. 키가 작은 재배종은 부식토가 많고 배수가 확실히 되는 토양에서 기른다. 온실에서는 반내한성을 지닌 종을 모래성질의 마사 혹은 화산석등으로 걸러진 광이 있는 곳에서 기른다. 재배기간 동안 물을 충분히 주고 매달 적절히 균형이 잡힌 액체 비료를 준다. 겨울에는 물을 적게 준다. 모든 *G. cranesbills*는 꽃이 핀 줄기와 오래된 잎을 새로운 잎과 꽃의 생성을 촉진하기 위해 제거한다. 증식 내한성 종의 종자를 봄이나 성숙하자마자 뿌린다. 반내한성을 지닌 종은 봄에 기온이 13~18°C일 때 파종한다. 봄에 분주를 하거나 초봄이나 봄 중순에 기저부 깎아내기를 하거나 굵은 부리를 꺾꽂이해서 부리를 내려서 증식시킨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진딧물과 응애, 민달팽이, 달팽이에 의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바이러스와 노균병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건조한 기후에서는 흰가루병이 문제가 된다.



튀지 않는 기품

땀무 속(*Genus Geum*)

지하경이 있거나 간혹 여러해살이의 포복 경을 갖는 50여 종의 속으로 북극권과 유럽, 아시아, 뉴질랜드, 북, 남미, 아프리카 온대지역의 산악지대, 개울가, 비가 많은 초지, 삼림지에 있다. 이들은 톱니 모양이거나 물결 모양의 가장자리가 있는 작은 잎이 균형이 잡히지 않은 복엽과 주름진 잎이 있는데 잎은 주로 로제트에서 나온다. 꽃대는 직립하고 짙은 크림색, 노란색, 오렌지색, 분홍 혹은 빨간색의 꽃은 단생하거나 취산 꽃차례의 형으로 피고 늦은 봄에서 여름까지 핀다.

*G. chiloense*의 교배종 줄기는 다른 *G. coccineum* 교배종보다 더 많은 가지를 치는 경향이 있다. 키가 작은 땀무는 암석정원에서 기르는 것이 적합하고 큰 종은 화단의 가장자리 앞부분에서 기른다. 내한성은 뛰어나고 햇빛이 잘 들고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기른다. *G. rivale*와 그 재배종은 부식토가 많고 축축한 토양에서 잘 자란다. 겨울에 토양이 물에 젖기는 것을 피한다.

증식은 이른 봄 파종을 하거나 가을이나 봄에 분주를 한다. *G. lady strothen*, *G. Mrs. J. Bradshaw*는 영양번식하지만 종자로 번식하는 큰땀무 등은 정원에서 쉽게 교배가 된다. 해충 및 질병으로는 잎벌 유충은 잎에 피해를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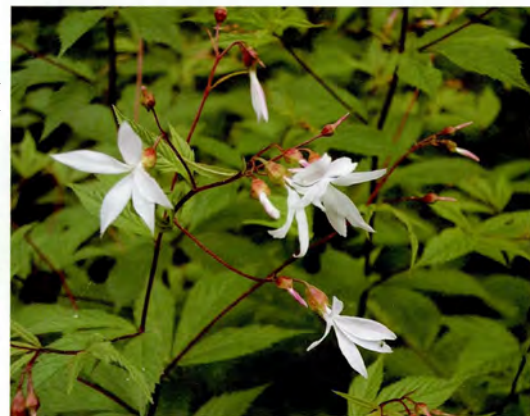


길레니아 속(*Genus Gillenia*)

지하경이 있는 여러해살이식물의 2종의 속으로 북미의 넓은 삼림지에 있다. 이들은 3개의 손바닥 모양을 한 짙은 청록색의 잎이 있고, 흐트러지고 흰색 혹은 분홍색의 소수의 꽃이 피는 원추꽃차례와 약간 불규칙하고 뒤집어진 청모양에서 선모양의 꽃잎이 있고, 꽃받침 조각은 열매를 맺을 때 커진다. 길레니아속은 밝은 삼림지나 그늘진 화단의 가장자리에 어울리고 꺾꽂이가 잘된다.

내한성이 뛰어나 어디에도 적응가능하고 재배는 비옥하고 약간 산성에서 중성이 좋고 가장 좋은 것은 축축한 토양에서 기르거나 배수가 잘 되는 곳이다.

특히 부분적으로 그늘이 있거나 하루 중 가장 더울 때는 밝은 태양아래 그늘이 있어야 한다. 주로 파종으로 증식하고 해충 및 질병으로는 민달팽이가 어린 싹을 먹는다.



Special Issue

절화로도 이용가능한 우리의 정원식물

여름은 꽃의 계절이다.

우리의 정원에도 색색의 꽃들이 꽃잔치에 여념이 없다. 이 아름다운 꽃들을 더 가까이, 내 거실에서, 책상에서, 식탁에서 함께 하고 싶다.

우리의 정원식물 중에서도 절화로도 유용한 식물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정원식물을 소개하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절굿대

보라색의 꽃방망이가 일품인 정원식물로 이색적인 모양이 돋보이는 정원을 연출한다. 꽃꽂이용 소재로도 으뜸이다.



데이지 실버문

일반적으로 데이지 계통은 4,5월에 개화를 하는데 이 품종은 6월에 개화하고 샤스타데이지는 줄기가 가늘고 키가 큰 반면에 이 품종은 줄기가 곧고 튼튼하여 키가 작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 꽃꽂이용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옥잠

비녀모양의 줄줄이 매달린 하얀색의 꽃은 절화용으로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달콤한 꽃향기도 일품이다.



충꽃

우리의 토종식물로 건조에 강한 식물이다. 충충이 피는 보라색꽃은 가을을 시원하게 해주는 아름다운 꽃이다.



알케밀라

스프레이형의 노란색 맑은 꽃이 고급이미지를 전달한다. 다른 절화용 꽃의 배이스용으로 좋은 소재이다.



후록스

후록스는 매우 화려하고 장기간화형의 식물로 정원을 조성하는데 빠질 수 없는 대표적인 소재이다. 포도송이 같은 풍성한 꽃무리는 절화용으로도 손색이 없다.



아이리스

품종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꽃색을 가지고 있어 우리의 정원에 기호에 맞게 선택하여 식재할 수 있다. 또한 꽃꽂이용으로도 매우 좋은 소재이다.



알리움기간티움

이미 절화용으로 많이 이용되는 추식구근으로 커다랗고 아름다운 꽃을 가지고 있어 근래에는 볼정원의 구근식물로도 각광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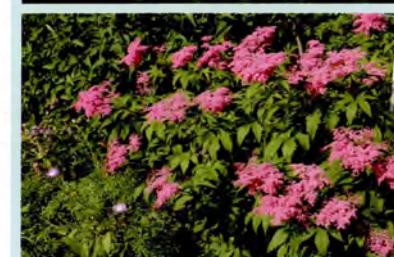
에키나

대표적인 아름다운 정원식물로 고급정원, 도로가, 골프장 등 어디에 적용해도 좋다. 꽃이 크고 화려하며 꽃이 저도 아름다운 이삭을 가지고 있어 절화용으로도 좋다.



아스타

가을의 대표적인 정원식물로 대면적식재를 하면 가을 어떤 풍경보다도 고급스럽고 화려함을 연출할 수 있다. 많은 품종이 있는데 특히 절화용으로 사용되는 품종은 키가 크게 자라는 고성아스타(novi)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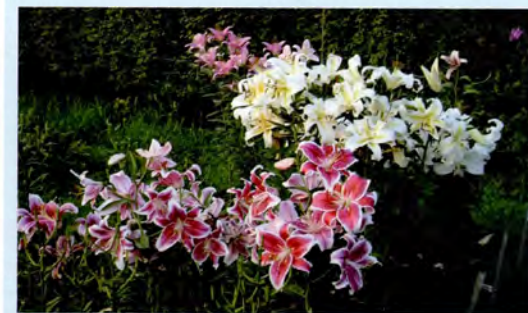
터리풀

솜사탕 같은 아름다운 여름꽃을 가지고 있으며 정원의 숨가장자리 등에도 좋고 부식질이 풍부한 토양에서 더욱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커다란 꽃무리는 절화용으로도 유용하다.



큰너도부추

일반 너도부추 품종에 비해 키가 커서 혼합, 혼성식재에도 좋고 꽃꽂이용으로도 유리하다. 대체로 건조지역에서도 잘 자란다.



꽃백합

원래 절화용으로 많이 이용되어왔던 구근식물로 수년전부터 정원용으로도 이용되기 시작했다. 특히 철쭉군생지에 혼성하거나 기타 여름 휴면기를 갖는 식물과 혼성식재에 알맞다.



솔리다고

대군락 무리지어 노란색꽃이 피면 아름다운 황금물결을 연상시킬 정도로 강렬하다. 생육이 강건하고 길가나 공원 등지의 대면적 조성에 유리하다.



리아트리스

이색적이면서 한국정서에 알맞은 긴 꽃대는 아름다운 꽃방망이를 연출한다. 구근형태의 뿌리로 인해 건조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적응하는 편이다. 꽃이 끝에서부터 피어 내려오는 특징이 있다.

“도심광장, 교통섬, 건물앞 공터, 옥상”
행사 디스플레이, 실내정원용
어디에서나 쉽게 설치 가능!!

출원번호 10-2014-0137480

오아시스(박스정원)

규격		
구분	규격	단가
	1,000×1,000×300	600,000
오아시스	1,000×1,000×400	700,000
	1,000×1,000×600	800,000

* 10개 이상 구매 시 배송비 무료

암석가든형

돌과 식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한 암석가든



혼합가든형

다양한 식물들을 이용하여 조성한 미니정원



텃밭가든형

채소와 꽃들을 이용하여 연출한 도시텃밭형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구입문의 T. 031-634-7990

관목
시대

활엽수림대의 반음지식물

산수국

고급스러운 화색, 음양지 모두 가능한

글 사진 편집실

활엽수림대 음지하부에 군식하거나
나무주변으로 식재하면 좋다.

양지부터 음지까지 모두 적응을 잘 하기 때문에 적응범위가 넓은데 특히 활엽수림대 음지하부에 군식하거나 나무주변으로 식재하면 좋다. 그리고 키가 작은 아즈가류나 수호초, 맥문동 등으로 군식한 지역에 중간중간 3-4주씩 모아심으면 전체적으로 볼륨감 있게 연출을 원할때 하부에 아주

작, 바위취, 황금리시마키아 등 키가 작은 식물들을 베이스로 심고 중간중간 키 차이를 두면서 평의다리, 호스타, 원추리류 등의 식물들을 적용할 때 산수국 또한 매우 유용하게 적용가능하다. 물가 계류주변에 군식하거나 돌틈에 식재해도 좋다.

산수국 외에 원예화된 수국종류 또한 매우 좋은 관목으로 활용가치가 높고 그 품종도 다양하다. 대부분 주먹형으로 꽃이 풍성하고 화색도 다양하며 반음지에서 양지까지 모두 적응이 가능하다.



산수국은 숲속의 계곡 주변의 물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관목이다. 높이는 다 자랐을 때 약 1m정도 자라고 작은 가지에 털이 난다. 잎은 긴 타원형이며 가장자리에 뾰족한 톱니가 있다. 꽃은 7-8월에 흰색과 하늘색으로 피며 가지 끝에 산방꽃차례로 달린다. 더운 여름에 시원함을 더해주는 청색빛의 산수국 꽃잎은 토양의 산성, 알칼리성의 농도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

원예화된 수국종류 또한
매우 좋은 관목으로
활용가치가 높고 그 품종도 다양하다.

수국은 품종에 따라서 내한성에 차이가 많으므로 품종선택에 주의하고 내한성이 약한 품종은 겨울철 보온에 주의하고 줄기 자르기를 적절하게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물빠짐이 좋은 비옥한 토양이 효과적이고 나무아래 군식하거나 도로주변으로 열식해도 좋다. 수국류는 여름에 꽃이 좋고 음지에도 적응가능하므로 경관적, 기능적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관목이다.



수국의 종류



Hydrangea macr. 'Blauer Zwerg' (Lavbla)



Hydrangea macr. libelle



Hydrangea macr. 'Miss Hepburn'



Hydrangea arborescens Annabelle



Hydrangea macr. Mme E. Mouillere



Hydrangea macr. 'rotschwanz'

화려한 신품종 관목

무궁화 겹꽃시리즈

- 겹꽃으로 매우 화려한 무궁화 품종입니다.
- 우리의 정원에 잘 어울리는 신소재 관목입니다.
- 테마정원으로 무궁화원을 조성할 때 안성맞춤입니다.



라벤다시몬



브라덴트



화이트시몬



치아리시몬



핑크시몬

구입문의



우리꽃영농조합법인 031-634-7990

분홍색의 작은 나팔을 닮은 메꽃



글 사진 이명호 이명호의 야생화
http://www.skyspace.pe.kr

대기오염의 지표식물

메꽃과의 식물들은 지의류와 함께 대기오염의 지표식물(指標植物)로 잘 알려져 있다. 지표식물은 매우 제한된 환경조건 아래에서만 생존하는 식물이므로, 이 식물의 분포상태를 파악하여 대기나 기후, 토양 등 분포장소의 환경조건을 알 수 있다. 메꽃과 나팔꽃은 특히 아황산가스(SO₂)의 오염에 민감한 식물이다. 즉, 이 식물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아황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이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극도로 오염된 지역에서는 이 식물이 살 수 없거나 또는 갑자기 사라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메꽃의 특징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들이나 밭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생육환경은 음지를 제외한 어느 환경에서도 자란다. 하얀 땅속줄기가 왕성하게 자라면서 군데군데에 덩굴성 줄기가 뻗으면서 자란다. 땅속줄기의 마디에서 발생한 줄기는 길이 50~100cm 정도의 덩굴로, 다른 물체를 감아 올라가거나 서로 엉키면서 자란다. 뿌리는 흰색으로 굵고 사방으로 퍼지며, 뿌리마다 잎이 나오고 다시 지하경이 발달하여 뻗어 나간다. 잎은 어긋나고 잎자루는 1~4cm로 길며, 잎몸은 길이 6~12cm, 폭 2~7cm 정도의 긴 타원상 피침형으로 밑부분에 귀 같은 돌기가 있다.

메꽃의 꽃과 열매

꽃은 6~8월에 피고 연한 분홍색이며, 입거드라미에 긴 꽃줄기가 나와서 끝에 1개씩 위를 향하여 달린다. 꽃받침 밑에 달린 2개의 포(苞)는 녹색이며 심장형이다. 꽃은 지름 5cm정도이고 갈때기 모양이다. 낮에 피었다가 밤에는 오므라든다. 꽃모양이 나팔꽃을 닮아 혼동하기 쉬우나, 나팔꽃이 아침에 피는 데 반하여 메꽃은 한낮에 피는 것



갯메꽃(열매)



갯메꽃



갯메꽃



갯메꽃(잎)

이 다르다. 나팔꽃의 꽃색은 다양하지만 메꽃은 연한 분홍색이다. 또, 나팔꽃은 일년생인 데 비하여 메꽃은 다년생이다. 꽃 속에 5개의 수술과 1개의 암술이 있고 흔히 열매를 맺지 않지만, 잘 관찰하면 드물게 볼 수 있다. 열매는 삭과로서 구형이다.

메꽃 우리들의 비교 특징

메꽃이 속해 있는 메꽃屬 식물들은 우리나라 야생종인데 비해서, 나팔꽃속 식물이나 아욱메꽃속, 고구마속 식물들은 대개가 귀화된 식물들이다. 모양은 전부 나팔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겨서 귀엽기만 하다.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나팔처럼 무슨 소리라도 날 것만 같다. 꽤 많은 종류가 있으니, 특징을 잘 관찰하면서 비교를 해야 구별이 잘 된다. 꽃의 모양은 전부 비슷하지만 잎 모양이 많이 다른 편이다. 기본종인 메꽃(*Calystegia sepium* var. *japonicum* (Choisy) Makino)은 잎이 장타원상 피침형이고 밑부분이 이저(耳底)로서 볼록하게 튀어나왔지만, 끝이 등스름하며 그리 날카롭거나 뾰족하지 않은 편이다. 반면에 큰메꽃(*Calystegia sepium* (L.) R. Br.)은 잎이 넓고 3각상 난형 또는 3각형이며, 밑부분이 옆으로 퍼져서 다시 각각 2개로 갈라져 심장저(心臟底)로 된다. 애기메꽃(*Calystegia hederacea* Wallich)은 잎이 좁고 밑부분이 양쪽으로 뾰족해지며 각각 2개로 다시 갈라진다. 잎이 피침상 3각형으로 점차 좁아지고 밑부분이 약간 심장저를 이룬다. 갯메꽃(*Calystegia soldanella* (L.) Roem. & Schult.)은 바닷가 모래땅에서 자라고 잎이 신원형(腎圓形)이며, 끝이 오목하거나 둥근 것이 특징이다.

선메꽃(*Calystegia davurica* (Herbert) Choisy)은 줄기가 어릴 때는 곧추 또는 비스듬히 자라지만, 어느 정도 자라면 덩굴로 변한다. 잎 모양은 메꽃과 비슷하고, 원줄기와 잎 양면에 짧은 명주선 같은 털이 있으나 점차 없어지고, 원줄기의 것은 그대로 남아 있다. 선메꽃은 다른 종류들에 비해서 몸에 털이 많은 특징을 갖기 때문에 '털메꽃'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들 중에서 가끔 꽃이 흰색으로 변이가 생겨서 이름 앞에 '흰'자를 넣어 부르는 것도 있다. 잎이 삼각형 모양의 난형이고 꽃이 흰색인 흰큰메꽃(*Calystegia sepium* for. *album* Y.N.Lee)과 유럽 원산의 귀화식물로 털이 없고 꽃이 흰색에 가까운 연한 분홍색인 서양메꽃(*Convolvulus arvensis* L.)도 있다.

메꽃의 전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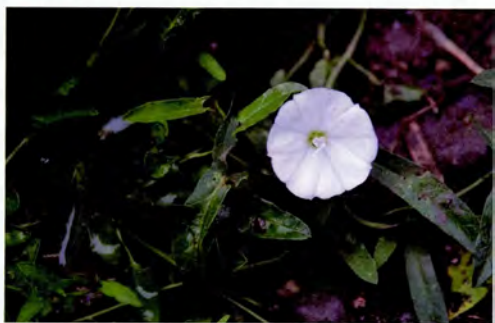
옛날 충성스러운 병사 하나가 어느 장군의 연락병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병사의 임무는 척후병이나 돌격부대와 장군의 주력부대와와의 연락을 맡으며 길 안내를 책임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돌격부대가 적진을 돌파하고 다음 목적지로 진격을 하려고 하는데, 이 병사는 갈림길에서 장군과 함께 진격해오는 주력부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병사는 패전하여 후퇴하는 적군에게 발견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적군은 주력부대의 방향을 돌격부대와 반대방향으로 유도키 위하여 병사가 표시하여 놓은 방향표지판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놓았다. 이 사실을 모르고 진격을 해오던 장군은 충성스런 병사가 꽃아 놓은 표지판을 보고는 표지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진격을 하려하는데, 문득 나팔모양의



메꽃(열매)



메꽃



서양메꽃



서양메꽃

꽃이 보이는 것이다. 그 꽃은 무엇인가를 호소하듯 간절한 모습으로 피어 있었으며, 주위에는 붉은 핏자국이 남아있었다. 장군은 그 핏자국을 보고는 충성스런 병사가 죽었음을 짐작하고 그 나팔같이 핀 꽃은 그 병사의 나팔이 꽃으로 피어난 것이라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는 모든 병사들에게 명령하기를 표지판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의 충성스런 병사가 꽃으로 환생하여 우리의 목표를 가리키고 있는 저 꽃이 가리키는 반대 방향으로 전진하라고 명령을 하였다. 그 결과 장군은 앞서간 돌격부대와 합류하여 대승리하게 되었고, 메꽃의 꽃말은 죽어서도 충성을 다하는 병사의 넋을 기리는 뜻에서 '충성'이라 불리게 되었다.

용도 및 번식법

봄에 살찐 뿌리줄기를 찌거나 삶아서 먹는다. 단맛이 있어서 좋다. 또한 썰과 함께 죽을 끓이거나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한다. 어린순은 나물로 먹고 땅속줄기는 삶아서 식용하는데, 땅속줄기에는 녹말이 많이 들어 있어서 춘궁기 때는 식량의 구실을 해주었다. 쓴맛이 전혀 없으므로 데쳐서 찬물에 한 번 행구기만 하면 된다. 뿌리·잎·줄기 등 전체를 이노·감장·피로회복 등에 사용하는데, 방광염·당뇨병·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다. 메꽃 뿌리는 약한 체질을 바꾸는데 상당한 효력이 있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들의 체력을 강화시킨다. 몸이 너무 말라서 고민하는 사람, 병을 오래 앓아서 기력이 몹시 약해진 사람이 메꽃 뿌리를 찌서 두세 달 먹으면 살이 오르고 기운을 차릴 수 있게 된다. 메꽃 뿌리는 혈압을 낮추고 당뇨병의 혈당치를 낮추는 효과도 있다.

뿌리를 찌서 먹거나 날로 생즙을 내어 먹으면 좋다. 여름철 무더위에 시달려 몸이 나른하고 기운이 없을 때 메꽃 뿌리를 생즙을 내어 먹으면 곧 몸에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메꽃을 한자로는 선화(旋花)라고 하여 당뇨병과 고혈압을 치료하는 약으로 쓴다. 메꽃 뿌리와 잎에는 아프젤린, 트리폴린, 아스트라갈린, 사포닌, 루틴 등의 성분이 들어 있는데 이 노작용과 약한 설사작용이 있어서 변비를 없애고 소변을 잘 나가게 한다. 생리불순이나 대하증 같은 갖가지 부인병에도 좋은 효력이 있고 기관지염이나 동맥경화에도 좋다. 뿌리를 말려 가루를 내어 기름에 개어 신경통이나 관절염으로 통증이 있는 부위에 바르면 통증이 완화된다. 깻메꽃에는 약간 독이 있어서 먹을 수 없지만, 나머지 다른 메꽃 종류들은 모두 먹을 수 있고 약으로 쓴다. 메꽃 뿌리는 성기능을 높이고 공복 기능을 높이는 데에도 효과가 좋다. 남성의 음위증이나 양기부족, 여성의 불감증 등에는 메꽃을 뿌리째 뽑아서 말려 잘게 썰어서 하루 20~30그램에 물 1.8리터를 붓고 물이 반이 되게 달여서 여러 차례에 나누어 마시면 효력이 있다. 꾸준히 먹으면 공복의 기능이 강화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차츰 건강하게 된다. 메꽃 뿌리를 찌서 말려 두고 자양강장식품이나 정력 식품으로 몰래 즐기는 사람도 있다. 메꽃은 맛이 달고 성질은 따뜻하다. 뿌리는 약간 매운 맛이 나고 잎은 약간 쓴맛이 난다. 시기에 관계없이 뿌리를 절단하여 심으면 새순이 올라온다. 다른 식물과 같이 심는 것은 피한다. 생육이 워낙 좋고 다른 식물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화분 이외의 곳에 심는 것은 금하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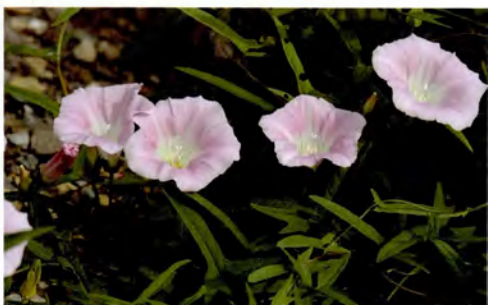
선메꽃



선메꽃(잎)



선메꽃(줄기)



대기메꽃



큰메꽃



큰메꽃



흰큰메꽃

정원 도구 특가 세일

‘베란다 텃밭, 옥상텃밭, 정원관리에 활용하는 도구 총집합!’

20%
~최대 30%할인



손도구 앞치마 7종세트

22,500

18,000원

정원도구세트의 최강재! 앞치마에 요긴한 정원도구들을 담아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구성: '스테인레스스 티 블레이드 하드우드 손잡이', 모종삽, 갈퀴2종, 파종기, 장갑(PVC코팅 그림), 앞치마 포함

손도구 가방 7종세트

18,000

12,000원

파종하기 모종 옮겨심기 결순따기 가지고르기 등 텃밭관리에 필요한 도구를 가방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정원 손도구 가방 세트에 편리하게 사용하세요

구성: '크롬도금 스틸 블레이드, 우드손잡이' 분무기, 전지가위, 모종삽2종, 갈퀴, 끈(30미터), 가방 포함



손도구 앞치마 4종세트

15,000

10,000원

기본도구만 알차게 담았! 가든도구 5종세트입니다.

구성: 저탄소 강스틸블레이드, 크롬도금, 우드손잡이(도구 길이 약 25.5cm), 갈퀴2종, 모종삽 2종

어린이 앞치마 4종세트

11,250

7,000원

어린이 텃밭 정원에 필수품
어린이가 텃밭 활동에 필요한 정원 손도구들을 귀여운 앞치마 안에 모두 담았습니다.

구성: 무독성 코팅 스틸블레이드/우드손잡이, 삽2종, 갈퀴, 앞치마 포함



2만원 이상 구매시 재배백 사은품 증정!(샐러드재배백/ 당근재배백 중 랜덤 발송)

- 어디서나 간편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텃밭 상자형 플라스틱 백입니다.

blog.naver.com/gardenjoa777 가든조아:031-712-7009



테마가 있는 식물이야기 연재- ㉞

글 사진 편집실 그림 박미영



1. 음지식물의 이해와 적용

음지에 생기를 불어넣는 푸른 리듬

무늬 등굴레

등굴레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숲속과 숲가에서 자라는 자생 다년초로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음지 식재에 이상적인 식물이다. 무늬 등굴레(*Polygonum odoratum* 'variegatum')는 우아하게 아치형으로 뻗은 줄기에 잎이 어긋나게 달려있으며, 반질반질한 작은 초록색잎의 가장자리에는 흰크림색의 줄무늬가 있고 펜던트처럼 살짝 향기가 감돌아 일반정원이나 허브정원에의 반그늘지역에도 고급스럽게 적용할 수 있다. 꽃은 늦봄에 피기 시작하여 여름 중간까지 감상할 수 있으며 꽃이 진 후에는 검은색 열매를 감상할 수 있다. 그늘을 선호하는 특성과 내한성이 강한 특성으로 큰 나무나 관목사이 등빛이 적은 수림하의 바닥 피복이나 건물 등에 의한 그늘지역, 데크 음지, 광량이 부족한 실내조경 등에 식재, 이용하면 효과적이다. 또한 토양조건이 알맞고 주변 식물의 밀도가 적으면 지하 경을 통해 빠르게 새 순을 내보내는 경향이 있다. 생장이 왕성하여 식재장소에



조밀하게 채우는 지피식물로도 아주 좋다. 가을에는 잎이 모두 지고 지하 경으로 월동을 하며 물주기만 주기적으로 해준다면 병충해 피해도 적어 관리가 손쉽다. 자생하던 숲 지역의 특성처럼 부엽토가 풍부한 반그늘 지역이 생장에 가장 좋으며 뜨겁고 건조한 지역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맛있게 지기 쉬운 음지의 조경패턴에 잎의 흰색 테두리와 흰색 꽃이 조화롭고, 아치형의 줄기가 바람에 흔들리며 음지에 생동감과 리듬감을 불어넣어 준다. 호스타 종류나 은방울꽃과 분류학적으로 가까운 계열로서 함께 군집을 이루도록 식재하면 매력적인 경관을 연출할 수 있다.



Q&A

Q: 베네나 종류 중 키가 크고 보라색꽃을 피우는 종류가 있나요?

A: 일반적으로 베네나를 말할 때 일년생 초화류 중 보라, 분홍색 등을 가진 키작은 품종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와는 다르게 키가 크고 직선형의 보라색꽃을 피우는 품종은 베네나 보나리언시라고 합니다. 이 품종 또한 일년생으로 유럽 등지에서도 화단을 조성하거나 디스플레이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소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꽃이 다화성이고 장기 개화되는 특성이 있어 여름 이후에 축제 또는 행사를 위한 1회성의 대면적 조성용으로 이용하면 매우 좋습니다.



2. 수중, 수변식물의 이해

향기가 좋고 무늬가 좋은

무늬창포



요즘은 많이 인식들이 되어서 별로 혼돈은 없으나 간혹 꽃창포하고 창포를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어 구별법을 알려드립니다.

꽃창포는 붓꽃과 식물로 봄에 크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데 반해 창포는 일반사람들은 꽃을 거의 확인할 수 없다. 창포는 천남성과로 여름에 잎 줄기의 하리층에 작은 옥수수 같은 꼬투리를 달고 있다.

창포는 천남성과로 줄기에 향이 좋고 소독작용을 하는 방향성 식물로 주로 낮은 물속에서 혹은 물가에서 생육한다. 줄기는 땅의 표면을 기듯이 자라는데 줄기의 굵기는 약 2cm 정도 된다. 줄기의 끝에 쪽에 잎이 모여 자라게 되고 이때 잎이 나온 자리가 하나의 마디를 이루고 있고 새로운

눈을 가지고 있다. 오래된 창포의 줄기는 길이가 30cm 이상 자라는데 번식은 2-3마디를 잘라 심으면 잘 자란다. 잎의 길이는 약 60-80cm 정도 자라고 번식이 빨라 매우 좋은 경관연출이 가능하다.

창포는 물의 정화능력이 뛰어난 식물이다. 그러므로 오염된 물이 유입되거나 배출되는 지역에 심으면 효과적이다. 더욱이 잎이 힘이 있고 윤택이 좋은 무늬창포의 경우 더욱 유리하다. 무늬가 깨끗하고 단정하며 무늬 창포로서는 드물게 생장이나 증식이 매우 빠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식재 적지는 연못 주변, 수로, 물기가 있는 정원 등에 좋은데 돌과 주변 지형지물과 잘 어울린다. 가장 좋은 물깊이는 5-10cm 정도의 수심이면 좋다.

물빛과 주변과의 조화가 좋은 식물로 병충해는 특별히 신경 쓸게 없으나 6월에 논우렁의 부화기때 수천마리의 논우렁 새끼들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그리고 장마철 침수가 되어 잎이 상처를 받거나 토사 등이 덮이면 잎을 자르고 새싹을 받거나 덮인 토사를 제거해준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재배에 관한 신경을 거의 쓸 필요 없는 식물이다.



3. 암석가든용 식물

푸른색 구름방석

패랭이 쿠션



일반적으로 패랭이류는 암석가든용으로 즐겨 사용하는 소재로 성록잔디패랭이, 왕상록패랭이, 패랭이 핑퐁 등 많은 품종이 사용되어왔다. 이번에 소개할 패랭이 쿠션(*Dianthus anatosolicus*)은 기존 품종들과는 조



금 차별된 품목으로 꽃보다는 잎의 형태가 매우 특색 있는 패랭이로 암석가든용으로는 최적의 소재이다. 잎은 짙은 푸른색으로 하나의

개체가 전체적으로 덩어리를 이루는 듯 느껴지며 구름 같은 형태의 매우 보드라운 느낌을 준다. 다시 말하면 매우 질감이 뛰어나고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시각적으로 폭신폭신한 방식 같은 느낌을 주어 반드시 손으로 그 감촉을 느끼고 싶은 충동을 가져다준다. 그 만큼 시각적으로 주는 질감은 패랭이류뿐만 아니라 어느 다른 품목에 비교하여 제일 으뜸이라 할 수 있다. 반면에 꽃은 매우 작고 잘 피지 않아 꽃보다는 잎의 관상 가치가 뛰어난 패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적용하기보다는 암석가든 중간 중간에 포인트로 적용하면 돌과 매우 잘 조화를 이루는 소재이다.

4. 화본과 사초과 식물로 대표되는 그라스

선이 고운 상록의 황금 포인트 사초 에버그로드



우리나라의 조경용 지피식물의 고급화로 급진전 하면서 앞으로 가장 유망한 품목 중 하나인 그라스 종류는 사실 역대나 수크령, 갈대, 부들 등 대단위로 소요되는 품목도 있지만 그라스의 묘미는 포인트 식물로 적합한 식물의 형태를 갖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라스들은 해를 묵을수록 품이 커지고 멋스러워지며 호트라침이 적어 이미 선진유럽이나 일본에서는 하나의 테마로까지 성장했다.



이번에 소개할 사초 에버그로드는 상록성의 선이 아름답고 형태가 좋은 무늬 종으로 키는 20~40cm정도이지만 긴 잎은 60~70cm에 달한다. 잎은 광택이 좋은 왁스 층이 발달해 부드러우면서도 질감이 매우 뛰어나다. 건조와 약간의 습지에도 강하지만 배수가 잘되고 비옥한, 약간의 건조지가 더욱 생육이 좋다. 매우 조밀한 형태를 유지하므로 통풍이나 배수가 잘 되지 않는 곳은 이른 봄 신초가 부패하거나 정마철 고사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조경의 적용은 점식나열을 하거나 혼합식재의 앞쪽 포인트 식물로 그리고 암석정원의 돌틈 식재나 혹은 겨울철 상록성을 잘 표현하는 포인트 식물 등으로 활용하면 좋다. 물론 옥상조경의 경우 너무 찬바람이 맞는 부위만 아니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데크의 주변식물로도 매우 유리한 식물이다. 그리고 관공서의 직선 도로 진

입로 등의 좌우 나열이나 중앙분리대 나열식물로도 최상이며 긴 화분에 심어 디스플레이용으로든 매우 유망하다. 베란다 조경의 경우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너무 습기가 많이 차는 공간은 피한다. 식재 후 일반적 인 관리상의 큰 문제는 없지만 겨울철 찬바람이 너무 심한 곳은 바람막이를 해주는 것이 좋고 포기가 많이 큰 경우 이른 봄 신초가 나오기 전 3~5cm 정도를 남기고 잘라주는 것도 좋다. 이는 매우 길고 조밀한 많은 잎이 이른 봄 신초를 약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며 겨울철 곤충의 월동장소로도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잎을 자르고 나면 종합살균제와 살충제를 처리하고 잘 짚은 퇴비를 주위에 깔아주면 더욱 아름답고 깔끔하며 풍성한 아름다운 잎을 감상할 수 있다.



Q&A

Q: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톤치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A: 숲 속에 들어가면 시원한 산림향이 풍기는 것은 피톤치드 때문입니다. 피톤치드는 소목 주위의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디프테리아 따위의 미생물을 죽이는 휘발성물질로서 나무가 해충이나 미생물의 공격을 막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발산합니다. 삼림욕을 통해 피톤치드를 마시면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어 편안하고 안정된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5. 향기식물 허브 이야기

충 꽃



충꽃(*Caryopteris incana*)은 마편초과로 우리나라 야생화 중 조경용으로 많이 쓰이는 대표종이면서 또한 토종 허브식물로도 빼놓을 수 없다. 반관목성의 충꽃은 잎겨드랑이에 서 수십 송이의 작은 꽃이 줄기를 중심으로 마디마디 둘러 피는데 그 모습이 충충이 충을 이루며 피워 아마도 충충이라 불리어진 것 같다. 가을의 보라색 꽃은 매우 아름답고 색깔이 좋아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뿐만 아니라 벌들을 유혹하여 항상 꽃 주변에는 벌들을 맴돌게 한다. 또 충꽃주변을 지나가다 보면 좋은 향기를 느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잎에서 나는 향기다.

어린이는 먹기도 하고 한방에서는 난향초라 하여 해열, 신경통, 중기 등의 약재로 쓰인다. 뱀에 물린 데나 가려움증에 외용한다. 이와 비슷한 모양으로 충충이 꽃이 있는데 간혹 충꽃과 이름이 비슷하여 같은 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충충이 꽃은 여름에 꽃이 피고 화색이 붉은 보라색을 띤다.

보라색 아름다운 꽃 뿐만 아니라 잎의 향기가 좋기 때문에 꽃과 향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토종 식물을 원할 때는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토종허브식물이다.



민트(MINT)

나라마다 선호하는 허브가 있는데 영국에서는 파슬리와 민트를 높게 평가한다. 민트는 대부분의 정원에서 잘 자랄 수 있다. 아니, 사실은 너무 잘 자라서 골치가 될 수도 있다. 스피어, 애플, 파인애플, 초코민트 등 많은 종류의 민트가 있다. 스피어민트는 흔한 민트의 종류지만, Bowles mint는 민트소스 만드는데 많이 추천되고 Apple mint는 (동그란 잎 모양)진정한 민트의 맛과 향을 다 가지고 있다. 키가 크게 자라기 때문에 정원에서 기를 때는 장마가 오기전에 6월초중순경 손자르기를 해주는 것이 쓰러짐을 예방할 수 있고 생육에도 좋다. 식물을 1년마다 옮겨 심는 게 아니라면 가을에 비료를 준다.

민트의 잔가지는 감자나 콩을 꿀일 때 물에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주로 쓰이는 곳은 민트 소스나 민트 젤리의 재료이다.





정원화로 좋은 우리 야생화

화려한 분홍색 군무(群舞) - 분홍바늘꽃

6월부터 숲이 우거지는 7월이면 키다리 식물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봄에는 작은 키의 식물들이 울망출망 피어나지만 그들이 자라나 자상부를 덮어버리면 그 후의 식물들은 큰 키로 서서 꽃을 피워야 생존에 유리하고 꽃가루받이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숲의 질서체계란 참 오래된 것이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정교하다. 분홍바늘꽃도 7월 즈음이면 1m가 넘는 키로 우뚝 자라나 꽃을 피운다. 국내에 자생하는 바늘꽃과 식물 중 가장 큰 꽃을 줄줄이 매달아 원뿔 모양의 기다란 꽃차례를 뽐낸다. 처음 보는 사람은 야생화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큰 키와 큰 꽃을 가졌다. 꽃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한 개의 기다란 암술이 네 장의 분홍색 꽃잎 밖으로 드러난 것이 보인다. 암술머리가 네 갈래로 갈라진 모습 때문인지 여름철 길게 늘어진 소의 헛바닥 같기도 하고 배를 정박시키는 듯이 연상되기도 한다. 북방계 식물이다 보니 남한에서는 강원 이북으로 자생지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드문 편이긴 하지만 있는 곳에서는 대개 무리를 지어 자라므로 멀리서도 분홍바늘꽃 군락이 찾아진다. 정원에 심어놓는다면 여름내 화려한 분홍색 군무를 실컷 감상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원도 평창군의 한국자생식물원에서는 환상적인 분홍바늘꽃 군락이 펼쳐졌다.

해마다 6월 말부터 7월까지 전사하는 분홍색 감동이 너무나도 선명하다. 하지만 지금은 아쉽게도 휴관 중이라 관람할 수 없다.

식재지가 아닌 자생에서의 분홍바늘꽃은 대관령 삼양목장, 강원도 홍천군 내면 쪽, 강원도 동해시 두타산 등지에서 만날 수 있다. 남한에서는 드물지만 백두산 주변에는 널린게 다 분홍바늘 꽃이어서 7~8월 중순까지만 가면 분홍색 꽃 속에 얼마든지 파묻힐 수 있다.

분홍바늘꽃(바늘꽃과)

Epilobium angustifolium

개화 : 6-8월

높이 : 50~200cm

강원도 이북의 양지바른 곳에서 드물게 자라는 여러해살이풀이다.

▶ 뿌리 : 옆으로 뻗는 뿌리줄기가 있다.

▶ 줄기 : 곧게 서고 굽적하며 간혹 가지가 갈라지기도 한다.

▶ 잎 : 어긋나게 달리고 피침형이며 가장자리에 잔톱니가 있다. 길이는 8~20cm, 폭은 1~3cm이며 잎자루는 없거나 매우 짧다.

▶ 꽃 : 6-8월에 줄기 끝에 달리는 총상꽃차례에 많은 수의 홍자색 꽃이 핀다. 꽃의 지름은 2~3cm로 큰 편이다. 꽃받침은 아래쪽까지 4갈래로 깊게 갈라지고 갈래 조각은 선상 피침형이다. 꽃잎도 4개이고 도란형이며 끝이 둥글다. 수술은 8개이고 한쪽으로 구부러진다. 암술은 1개이고 암술머리는 4갈래로 갈라진다.

▶ 열매 : 좁고 긴 타원형의 삭과이고 익으면 4갈래로 갈라진다.



분홍바늘꽃 전사



한국자생식물원의 분홍바늘꽃 군락

가을이 되면 분홍바늘꽃은 긴 바늘 모양의 열매가 4갈래로 갈라지면서 털 달린 작은 씨를 세상 밖으로 날려 보낸다. 왜 바늘꽃이냐고 묻던 사람도 그때쯤이면 이해를 한다. 키가 크다 보니 분홍바늘꽃은 무리 지어 씨를 날려 보내는 장면도 인상적이다.

유사종 알아보기

분홍바늘꽃은 바늘꽃과의 식물이다. 달맞이꽃도 같은 바늘꽃과 식물이지만 약간 다르다. 분홍바늘꽃과 형태적으로 매우 유사한 바늘꽃과 식물을 알아보자.



대관령 삼양목장 쪽의 분홍바늘꽃



백두산 부근의 분홍바늘꽃

우선 식물명상 원조격인 '바늘꽃(*Epilobium pyrrhophyllum*)'이 있다. 분홍바늘꽃에 비해 체구가 훨씬 작고 꽃도 작지만 꽃을 크게 하고 진한 분홍색으로 만든 원예품종을 들여와 심기도 한다.

바늘꽃의 암술머리가 작은 곤봉형인 것에 비해 커다란 구형인 것은 '돌바늘꽃(*Epilobium cephalostigma*)'이라고 한다. 암술머리의 모양 외에는 바늘꽃과 큰 차이가 없다.

분홍바늘꽃과 아주 비슷한 것으로 '큰바늘꽃(*Epilobium hirsutum*)'이 있다. 이름에 '큰'자가 들어가다 보니 분홍바늘꽃을 큰바늘꽃으로 착각하기도 한다. 실제로 꽃은 큰바늘꽃보다 분홍바늘꽃이 훨씬 더 크므로 혼동하기 쉽다. 큰바늘꽃은 울릉도에서도 자라지만 비교적 보기 드물다. 분홍바늘꽃에 비해 작지만 바늘꽃에 비해서는 큰 편이므로 개발 가치가 충분하다.

원예품종 중에서는 같은 바늘꽃과의 식물인 '가우라(*Gaura lindheimeri*)'가 가장 비슷하다. 가우라는 꽃이 나비 모양이라 색깔에 따라 흰색 꽃은 백접초, 붉은색 꽃은 홍접초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한 개체에서 흰색과 붉은색이 함께 피는 품종도 있으므로 가우라로 불러주는 것이 좋다.



분홍바늘꽃의 갈라진 열매



바늘꽃



돌바늘꽃



큰바늘꽃



가우라 흰색 꽃



가우라 붉은색 꽃



가우라로 꾸민 정원

심기와 관리하기

- 분홍바늘꽃은 기본적으로 별이 잘 드는 곳에 심는 것이 좋으며 반 그늘진 곳도 괜찮다.
-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사질 양토에서 잘 자란다.
- 어느 정도 습기가 있는 곳은 괜찮으나 너무 많은 곳은 피한다.
- 물은 보통으로 관수 관리한다.
- 북방계 식물이라 여름철의 고온다습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는 것은 좋지 않다.
- 부엽을 적당히 섞어주는 것은 좋으나 과다하게 시비하면 꽃이 피기 전에 줄기가 너무 길게 자라므로 관상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 가을에 채취한 종자를 바로 뿌리면 발아한다. 포기나누기나 꺾꽂이로도 번식이 가능하다.



글 사진 이동혁
 핵이삼촌의 풀꽃나무 일기
<http://blog.naver.com/freebowl>
 한국의 나무 바로알기, 한국의 야생화 바로알기 저자

우리씨드 완성품! 전시용, 행사용, 효과만점의 빅사이즈 화분 화 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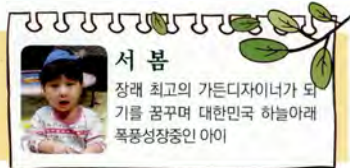
박람회, 모델하우스, 지역축제 등
 행사용으로 안정맞춤
 각재촉 곧바로 완벽한 정원 조성!

- ◆ 우리꽃 빅사이즈 화분용 상품은 충분히 자란 정원용 식물을 소비자가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상품입니다.
- ◆ 오랫동안 재배하여 큰 포기로 자란 식물로 화분 혹은 기타의 용기 등에 심겨져 이용 후 바로 그 최상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 이제 심고 오랜 기간 기다려야 제 모습을 보여주던 정원에서 심고 나면 곧 바로 아름다운 최상의 정원이 가능합니다.



우리꽃영농조합법인 구입문의 031.634.7990

서봄과 함께 떠나는 정원식물 나들이



혼성식재를 위한 최고의 정원식물

꽃백합



커다란 꽃송이가 너무 예쁘네요.

흔히 꽃나리라고도 불리는 꽃백합은 구근식물로 주로 아시아, 유럽, 북미 등
에서 자생하며 수많은 교배종이 있고 대략 100여종이 있는 대형속 식물입
니다. 몇 년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절화용으로 재배되어 사용되어
져 왔고요, 조경용으로는 가정의 소화단에 일부 심는것이 대부분이었죠. 꽃
은 화려하지만 화기가 짧아 조경용으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어 실제로 그



이 아름다운 꽃을 누구와 함께 보면 좋을까? 아빠, 엄마, 친구들 6~

활용이 절화용으로 제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근래에는 꽃백합이 매우 화
려하고 구근으로 다른 식물과 혼성식재가 가능한 점에 착안해서 적극적으로
조경에 접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혼성식재 시 주식물을 보완할
수 있는 최고의 소재로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예를 들면 꽃백합은 6~7월에 개화하기 때문에 봄 또는 가을에 개화하는 초
종과 혼성식재하면 봄꽃이 꽃이 지고난 후 또는 아직 꽃이 피기전인 가을꽃



상색조팝과 꽃백합을 혼성식재하여 아름답게 꽃이 핀 정원 앞에서

사이에서 여름의 공백기를 충분히 보완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
고 철쭉사이의 꽃백합식재도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적용된 것이에
요. 종이 다양한 화색과 초장에 따라서 여러품종이 존재하는데요,
키가 작은 품종은 분화용 또는 혼합식재 시 앞쪽 키작은 식물과 혼
성식재하면 좋습니다. 키가 큰 품종은 단일 대군락 식물들과의 혼
성식재가 매우 유리한데요, 다시 말하면 위에서 언급한 철쭉 군락
사이에 식재하든가 또는 그라스 중 역새류는 손이 늦게 올라오기
때문에 역새류 군락지에 혼성식재하면 여름에는 꽃백합의 아름다
운 꽃을 감상하고 이후 아름다운 역새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둘씩 계속 꽃을 피우네요.

재배는 배수가 잘 되는 사질양토가 좋으며 유기물이 풍부한 토양을
선호합니다. 대부분 약산성에서 중성토양을 좋아하고 성장이 활발
할 때 물을 충분히 주고 겨울에도 습도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
다. 대부분은 양지를 선호하지만 수림의 반음지에서도 잘 자란답니
다. 그렇기에 나무그늘아래 반음지식물사이에 혼성식재해도 무난
해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조경에 적용함으로써 혼성식재를 위한 주
요 정원식물로 자리잡고 있어 그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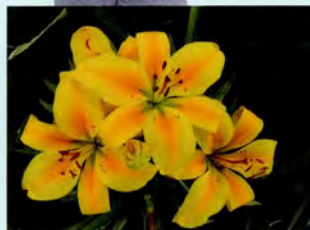
꽃백합 종류 알아보기



스티파이더



구근 알뿌리



골든조이



아나스타샤



나보나



스피랑핑크



엑소티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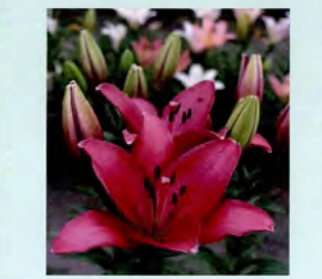
퍼플프린스



줄리스베네



범불비



팬지오

특집

도시농업의 미래 제6회 강동 친환경 도시농업박람회

글사진 박미영

6월 11일~12일 이틀간 강동구 천호공원에서 '제6회 도시농업박람회'가 열렸다.



이른 아침부터 천호공원에는 도시농업박람회를 관람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이 북적였다.

도시농업의 성과를 나누고 미래 도시농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개최한 이번 축제는 다양한 작품전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였다.



강동구는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강동을 만들기 위해, 2010년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농업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복원 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이혜식 구정장은 "대한민국 친환경 5회 연속 수상을 한

강동구 친환경 도시농업의 현장을 보고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야생화정원, 테마정원, 허브퍼즐정원 등 천호공원 입구 쪽에서부터 화사한 꽃으로 이어진 길을 따라 공원 내부로 걸어 들어가면 동별로 주민들이 정성껏 가꾼 상자텃밭이 눈길을 끈다.

전시작품은 주로 재활용 소품을 활용한 가드닝 방법과 작품을 주로 선보이며, 주위에는 미세먼지 잡는 흙 가드닝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실공기 정화정원, 베란다 플라워정원, 곤충체험, 도시양봉체험 등 갖가지 전시·체험 부스가 줄지어 있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한쪽에서는 채소·원에 모종 나눔행사가 진행돼 모종을 받기 위해 줄을 길게 늘어선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주민들은 꽃이나 식물을 담은 목재화분과 장식품, 가족화분, 테라리엄(terrarium:식물을 넣어 가꿀 수 있는 투명용기)등 만들기 체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 밖에도 도시텃밭 병충해 관리, 채소를 이용한 요리코너, 업사이클링 도시농업 코너 등 다양한 볼거리로 발길을 잡아끈다.

박람회에선 야생화, 비오름(생물서식지), 허브 등 테마정원과 꽃, 텃밭, 환경, 허브, 로컬푸드 등을 주제로 한 작품들과 함께 포토존을 즐길 수 있었다.

테마 정원을 지나 중앙무대로 가는 길에는 터널 꽃길로 조성된 '꽃으로 피어나길', 폐현수막으로 만든 꽃밭 '환경을 지키길', 허브 작품을

활용한 '허브로 향기롭길', 꽃과 식물로 집전체를 꾸민 미래 친환경적 유럽의 정원 '숲속의 작은 집' 그 외 '텃밭으로 힐링하길', 로컬푸드로 건강하길' 등 각각각색 5개 테마 길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 길들은 각자 전시관, 체험관, 홍보관 등으로 이어진다.



도시농업박람회는 다양한 작품전시는 물론 벽면, 울타리, 옥상 어디든 정원으로 바꾸는 방법 등 흙가드닝을 통해 배우고 가족이 함께 가 정원을 체험할 수 있다.

상자 속 작물 맞추기, 맛으로 채소 구분하기, 점토 공예, 화분 만들기, 논생물 체험 등을 통해 재미와 교육을 겸한 오감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었으며 스마트무빙방, 베란다 플라워 정원, 주방 웰빙 채소 텃밭 등 각 가정에서 주민들이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원에 체험도 제공하였다. 이같은 체험으로 농부에게 새로운 기술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며 음식물폐비와 커피찌꺼기처분 천연자원을 활용한 재활용으로 자원순환형 도시농업을 기대해본다.



12일 오전 10시에는 박람회장 바로 옆에 위치한 해공도시관 지하 다목적실에서 '원예세미나'가 열려 원예에 대한 좋은 지식들을 시민들에게 전파했다.

'원예 세미나'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원예치료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날 박람회에서는 농업기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실생활에서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원예 지식도 소개되었다.



콘크리트 빌딩으로 가득한 도시의 일상을 벗어나 푸른 자연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날 행사를 통해 강동구 시민은 물론 박람회를 즐기는 방문객들이 자연과 공존하며 생명이 살아 숨 쉬는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오감을 통해 마음껏 누리시길 바라며, 도시농업을 통해 할아버지부터 아이까지 삼대가 소통하고, 이웃과 더불어 즐기면서 따뜻한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



가든디자이너 오경아의
속초 정원 이야기

속초에서
온 편지



여름의 뜨거움과 건조를 못견디는 양잔디에게는 기혹한 계절이다. 그러나 그 계절의 끝에 '열매'가 맺혀온다. 보리수 나무에 열린 빨간 열매

글 사진 오 경 아

7월 July 뜨겁거나 한가롭거나!

오 경 아

<http://blog.naver.com/oka0513>

정원의 발견, 가든 디자인의 발견, 가든 디자이너
오경아의 영국 정원 산책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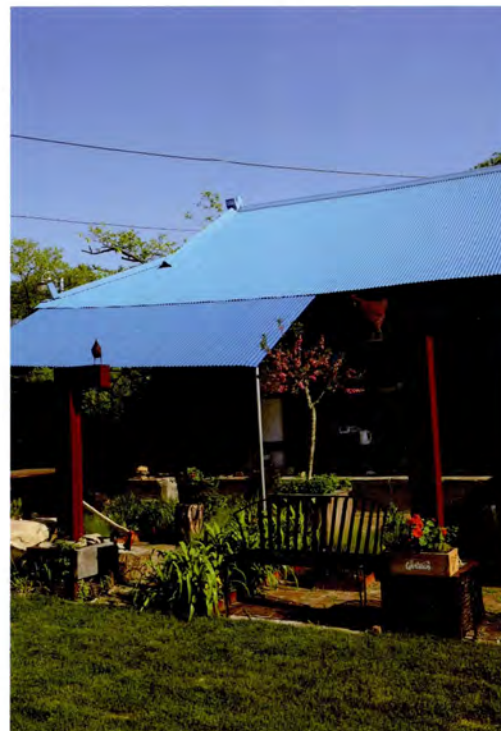
작가이자 가든 디자이너로 활동중인 오경아는 정원을 문화로 보는 다양한 글쓰기와 예술과 접목된 생활 속의 정원을 디자인하고 있다.

서로 달라서 필요한 우리들

올 봄에 전시에 썼던 잔디를 버려야 할 일이 생겼다. 아직은 살아 있는 생명을 버릴 수 없어 살려보겠다는 의지로 속초 집 마당으로 옮겼다.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험담이 쏟아졌지만 내가 아니라 살아보려는 식물의 의지를 한 번 믿어보기로 했다. 다행히 잔디는 심은 후 자리를 잡고 잘 자라주는 듯 했지만 한 달이 지나자 잎이 쪼그라들면서 누렇게 타는 현상이 일어났다. 여름의 뜨거움과 건조함을 견디지 못하는 양잔디의 특징 때문이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잔디를 양잔디와 한국잔디로 구별한다. 한국 잔디는 우리나라를 자생지로 두고 있는 식물이며서 붙여진 이름이고, 양잔디는 다른 나라를 자생지를 두고 있어 포괄적인 의미로 서양잔디를 줄여 부른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하게 구별을 하자면 한국잔디의 공식 식물학명은 *Zoysia japonica*고, 양잔디는 조금 더 다양해서 벨트그라스 *Agrostis palustris*, 개나리 블루그라스 *Poa compressa*, 켄터키 블루그라스 *Poa pratensis*, 러프 블루그라스 *Poa trivialis*, 퍼레니얼 그라스 *Lolium perenne*, 파인 페스큐 *Festuca spp.*, 톨 그라스 *Festuca arundinacea*, 밀 그라스 *Agropyron spp.*, 블루 그램마그라스 *Bouteloua gracilis*, 버팔로 그라스 *Buchloe dactyloides*, 버뮤다 그라스 *Cynodon spp.*, 세인트 어거스틴 그라스 *Stenotaphrum secundatum* 등이 있다.

이 중 우리나라에서 양잔디로 불리는 종은 켄터키 블루가 가장 많다. 이 켄터키 블루 종은 봄부터 늦가을까지 심지어 겨울까지도 초록을 유지해주는 장점이 있지만 여름의 뜨거운 햇살과 건조함에 매우 취약하다. 반면 한국 잔디인 조이시아 종은 늦봄에서야 초록의 잎을 틔우고 가을이 되자마자 누렇게 잎이 저 초록의 시간이 짧지만



뜨거움이 있어 그들의 시원함을 알게 되는 여름이다. 차마 일에 드려온 여름 그늘

대신 가뭄과 햇살에 매우 강한 장점이 있다. 이런 극명한 장단점 탓에 잔디는 한 종을 집중적으로 심기 보다는 몇 종을 혼합시키는 씨를 뿌리곤 한다. 섞어주면 이런 취약점을 서로 보완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축구장이나 테니스, 골프 등에서처럼 운동 경기를 하는 곳에 심는 잔디는 이 혼합의 비율이 아주 중요하다. 아름다운 잔디밭을 만들려는 목적에서이기도 하지만 잔디의 혼합 비율에 따라 공이 뛰는 성질이 달라지고, 사람이 걷고 뛰는 속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만약 양잔디를 심은 정원에서라면 이 여름이 아주 힘들게 변한다. 이럴 땐 원에 상토나 코코넛 피트 등으로 멀칭을 두텁게 해주어 수분 증발이 너무 빨라지는 것을 늦춰주는 것이 좋다. 대신 한국잔디는 여름이 가장 좋은 성장의 시기가 된다.

주기적으로 잔디를 깎아주는 것만으로도 관리가 충분해진다. 대신 가을로 접어들면 급격하게 초록을 잃고 또 씨앗이 떨어져 스스로 번식을 시키는 힘이 양잔디보다 약하다. 그래서 가을엔 꼼꼼히 묵은 부스러기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일이 필요하다.

신기하게도 이 세상은 다 좋은 것이 절대 없다. 장점이 있으면 분명 그에 반하는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그러니 잔디를 혼합해서 심어주듯 우리들도 함께 모여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해주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 일일 수밖에 없다.

여름의 끝자락에 만나는 열매

지인이 사는 강원도 횡성에는 오일장이 선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운 좋게 가는 날에 장이 걸리면 나는 모종을 사기에 바쁘다.

지난 해 나는 이곳에서 생강, 칸나, 토란, 분꽃을 사서 여름 화단을



울금, 토란, 달래, 접시꽃, 해바라기로 장식되고 있는 여름 정원의 기대가 높아진다.

꾸었다. 올해는 이 여름 화단에 변화를 주고 싶어 생강 대신 울금을 택했다. 울금의 공식 식물명은 *Curcuma longa*다. 생강이 그러하듯이 울금도 열대 식물이어서 중국의 남쪽 지방과 인도네시아, 인도를 포함해 남반구의 뉴기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 자생하는데 인도의 커리 요리의 원료가 바로 이 울금이기도 하다. 잎은 생강보다 넓은 편이고 꽃도 화려하다. 울금과 함께 해바라기를 추가했고, 여기에 맥시고 인근이 자생자인 달리아 *Dahlia*, 토란, 접시꽃으로 작년과 다른 여름 화단을 계획 중이다. 여름 화단의 절정은 7월에서 8월 사이다.

여름 화단은 꽃과 잎이 뚜렷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어떤 화단보다 화려하지만 우리나라의 겨울 추위를 이겨내지 못해 뿌리를 캐내 따뜻한 곳에 보관하고 다음 해 봄에 다시 심어주는 수고가 필요하다.

식물은 광합성 작용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뜨거운 햇살을 마냥 좋아할 것 같지만 실은 그렇지 않다. 쏟아지는 햇빛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식물에게도 스트레스다. 잎의 앞면은 햇빛을 받아들이 광합성 작용을 하고, 뒷면에는 기공이 있어 산소와 수분을 배출시키는데 이때 앞면은 태양의 뜨거운 열을 이겨낼 수 있도록 두껍게 코팅이 돼 있다. 그래서 필요 이상의 햇빛은 반사시켜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지만 이런 기능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쏟아지는 햇살은 식물에게 화상을 입히고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한다. 다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식물은 다양한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생존하는데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리고 그 뜨거운 열을 견뎌낸 시간의 끝자락에 '열매'를 맺는 여름을 만나게 된다.



뜨겁지만 한가로운 여름의 시간이 흘러간다.

뜨겁거나 한가롭게!

울 봄, 작년보다는 비가 자주 내려줘 가뭄의 고통은 덜했지만 느닷없이 불어 닥친 바람은 수백 년 된 나무마저 쓰러뜨렸다. 게다가 해마다 끊임 없이 온도가 상승하는 온난화 현상은 올 여름을 얼마나 또 고통스럽게 달굴지 생각만 해도 고개를 짚게 만든다.

가을이라고 만만할까? 늦여름에 늘 그랬듯 태풍은 또 얼마나 우리를 덮쳐 올지, 폭설이 내려도 가을에도 문제가 되는 겨울날씨도 여름만큼이나 가혹하니 말 할 필요도 없다.

어찌 생각해보면 사는 것 자체가 심란하고 걱정스럽기만하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만 이러하지는 않다! 우리보다 더 알몸으로 이 지구의 심란한 변화를 고스란히 받아드리며 사는 식물들이 있다.

이 식물들이 우리의 정원에서 함께 살아 주는 것 자체가 적잖이 위안이 된다. 분명한 믿음 하나는 이 뜨거운 열의 끝에 찬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온다는 것이다.

뜨거운 여름날, 남쪽으로 길게 늘어선 처마 선을 따라 속초집 마루에는 그늘이 드리운다. 냉창고에서 방금 꺼낸 수박에 맺힌 물방울만큼이나 상큼한 시원함이 그 그늘에 숨어 있음을 깨닫는다. 뜨겁지 않았다면 이 시원함을 알았겠나! 그리고 그 시원함 속에 뜻하지 않은 한가로움이 바람과 함께 스며온다.

뜨겁지만 한가로운 여름의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간다.

정원속의 식용 꽃(Edible Flower)

우리의 정원에는 다양한 식물을 키울 수 있다. 그 식물들 중에는 꽃, 잎, 뿌리 등을 먹을 수가 있는 종류들도 많이 있다. 그들은 그대로 날 것으로 먹든지, 말려서 차로 마시든지 식물에 따라서 제각각이다. 특히 아름다운 꽃을 보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인 일이다. 식용할 수 있는 꽃들이 어떤 것이 있고 이들을 재배하는 방법, 어떤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지, 다양한 식용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꽃색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원추리꽃(DAYLILIES : *Heemerocallis* spp.)



생기 있는 원추리 꽃은 오직 하루 동안 피어있는 꽃을 만든다. (이름은 여기서 유래되었다.)

아시아인들은 수세기동안 이 꽃들을 즐겨왔다.

원추리 꽃은 색깔별로 다양하게 있는데 품종에따라 노란

색,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 등 화색이 다양하다. 꽃의 크기는 5cm에서 10cm까지 다양하다. 꽃이 매우 아름답고 대

부분 내한성이 있는 다년생식물이다. 모든 품종을 식용으로 사용할 수 있더라도 밝은 색깔은 덜 씹살한 편이다. 약간의 그늘이 있거나 완전한 빛이 들어오는 곳의 좋은 흙에서 자라야 한다. 가끔씩 비료를 주고 매우 습하게 유지 시켜준다.

원추리 꽃의 잎은 달콤한 맛에서부터 약간 금속 맛이 나는 것까지 다양하다. 조리법에 사용하기 전에 맛을 보도록 한다. 썩은 중국 튀김 요리나 일본 튀김요리에 오랫동안 사용되어져 왔다. 원추리라고 불리는 썩은 전통적으로 꽃이 피기 전날에 따르고 시큼한 국물을 위한 재료로 선택되어왔다. 썩은 아스파라거스와 녹색 콩 그 중간 맛이 난다. 썩들은 또한 볶거나 구워서 사용할 수 있다. 얇게 잘라진 원추리 꽃잎은 샐러드나 스프에 사용된다. 일단 수술과 암술이 제거되고 나면, 꽃 전체는 치즈와 함께 속을 채우거나 빵가루와 같이 튀긴다. 또한 아이스크림을 곁에 담아 냉 때凍 쓰인다. 달콤한 맛이 나는 품종들은 맛이 좋은 사베트를 만들 수 있다.



윤정식 교수의 허브 & 아로마테라피

모기퇴치 (Anti-Mosquito)에 좋은 에센셜오일들

천연 모기퇴치스프레이 만들기



글 사진 윤정식 -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 회장, 생활의 향기 대표
www.aromatherapy.or.kr/ www.aromalife.com aromainlife@naver.com

요즘을 가습기 사건이나 지카 바이러스 등을 보면서 천연 허브와 아로마 에센셜오일 등에 대한 가치가 더욱 부각받고 있다. 어릴적 여름 밤에 시골에서 밤새 불면서, 쭉을 피우면 모기들이 곁에 안 오던 추억이 생각난다. 모기퇴치에 도움을 주는 허브로는 시트로넬라, 레몬그라스, 제라늄, 유칼립투스, 일랑일랑, 패츨리 등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여름철 필수품인 모기퇴치에 도움을 주는 에센셜오일들과 천연 모기퇴치스프레이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시트로넬라(Citronella)

- Scientific name : Cymbopogon nardus
- Family: Poaceae(화본과)
- Plant Part : leaf
- Note: Top
- Country of origin : Sri Lanka, Philippines
- Extraction Method : Steam Distillation (수증기 증류법)
- Principal Components : geraniol, citronellal, citronellol



1) 특징

- 곤충, 벌레 기피제로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모기퇴치에 효과가 크다.
- 배인 상처, 찰과상, 부은데 효과적이다.
- 레몬향이 나서 신선한 활력을 증진시키며 신경 피로에 효과가 있다.

2) 주의사항

- 안전하나 개인에 따라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다.

2. Lemongrass (레몬그라스)

- Scientific name : Cymbopogon citratus
- Family: Poaceae(화본과)
- Plant Part : plant(식물)
- Note: Top
- Country of origin : Nepal/Ceylon/India
- Extraction Method : Steam Distillation(수증기 증류법)
- Principal Components : geraniol, nerol, citral



1) 유래

속명의 'Cymbopogon'은 그리스어의 'cymbas' 즉 '속이 비어있다'는 말과 'pogon' 즉 수염이라는 말의 합성어로 줄기는 속이 비어있고 잎은 수염처럼 가늘고 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인도에서는 전통적으로 열을 내리고 감염된 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 왔다.



2) 특징

해열제, 콜레라, 감염증의 해독제로 사용되었던 레몬그라스는 정서적으로 생기를 부여해 우울증을 개선시키고 탈진 시 에너지를 충전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모공을 좁혀주며 여드름, 무좀, 마른버짐 등을 치료하고 머릿니 제거 및 기름진 모발관리에도 사용된다.

소화기관에 작용해서 소화불량, 복통, 헛 배부름 등을 해소하고 위의 기능을 강화, 위통을 완화하고 위장염을 치료한다. 또한 젖산을 제거하고 순환을 촉진하기 때문에 근육의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살균, 방취 효과가 있어 가족의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사용된다.

3) 주의

피부가 예민하게 반응하므로 소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Geranium (제라늄)

- Scientific name : (a)Pelargonium roseum asperum
(b)Pelargonium graveolens
- Family: Geraniaceae(위선아과)
- Plant Part : leaf/flower
- Note: Middle
- Country of origin : Morocco, Madagascar, Egypt
- Extraction Method : Steam Distillation(수증기 증류법)
- Principal Components : citronellal, geraniol, linalol



1) 유래

제라늄의 어원을 살펴보면, 학명의 'Pelargonium'은 라틴어의 'Pelargos(황새)'를 뜻하며, 제라늄의 씨가 황새의 부리를 닮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리고 종명의 'graveolens'는 'gravis(강한)와 'olens(향기롭다)'의 합성어로 강한 향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 아프리카인들은 제라늄을 설사나 상처, 피부 트러블 등의 치료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유럽에서는 건물 창가에 나뉜 기운이 들어오지 않도록 제라늄을 키우는 풍습이 있다.

2) 특징

그린 플로럴 풍의 우아한 제라늄 향은 스트레스로 고민하는 현대인들에게 잘 맞는 향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유도해 피곤하고 지친 심신을 건강하게 회복시켜준다. 제라늄 오일은 호르몬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고, 또한 체액의 밸런스를 조절해 림프 순환을 돕는다.

제라늄은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생리전 증후군, 생리 장애, 폐경기 장애에 효과적이며 체액 정체를 해소하고 노폐물을 제거해서 비만에도 도움을 준다. 위, 간, 신장 등에 강장, 정화 작용을 하고 비뇨기 염증, 요도감염증을 비롯해 입, 목구멍, 잇몸 등의 감염증에도 효과적이다. 정서적으로 기분상승효과가 있으며 우울, 불안, 스트레스 해소 등에 사용된다. 또한 제라늄은 피지분비를 정상화하고 수렴, 진정, 균형 작용이 있어 건성, 지성피부타입에 효과적이며 피부트러블이나 상처, 궤양, 화상, 여드름, 염증 등을 치유하고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시켜 준다.

3) 주의

민감성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호르몬 조절 효과가 있으므로 임신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4. Eucalyptus (유칼립투스)

- Scientific name : (a)Eucalyptus globules
(b)Eucalyptus radiata
(c)Eucalyptus citrodora
- Family: Myrtaceae(도금양과)
- Plant Part : leaf(잎)
- Note: Top
- Country of origin : Australia/Portugal
- Extraction Method : Steam Distillation(수증기 증류법)
- Principal Components : 1-8 cineole, α-pinene, limonene



1) 유래

유칼립투스(Eucalyptus)의 어원을 보면 'eu'는 '잘(well)'이라는 뜻과 'kalyptos'는 '보호하다(cover)'라는 뜻이 합쳐져 '잘 싸였다'는 뜻으로 꽃이 피기 전에 꽃받침이 꽃의 내부를 완전히 둘러싼 것에서 비롯된 이름이다. 유칼립투스 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 중 하나이며, 코알라가 유칼립투스의 잎을 먹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원주민들은 옛날부터 상처난 데 뿐 아니라 만병통치약으로 유칼립투스를 애용해 왔다.

2) 특징

항박테리아, 항바이러스 등의 작용을 하는 유칼립투스는 감기, 기침, 카타르, 부비강염, 인후염 등의 호흡기 감염증에 좋고, 천식으로 인한 호흡 곤란을 해소하며 객담 제거를 도와 기관지염을 호전시킨다. 빙광염을 비롯한 비호생식기의 질환치유에 도움을 주며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근육통에도 효과적이다. 또한 콜링과 리후레쉬 효과로 지성 피부관리에 사용되며 종기, 여드름, 헤르페스, 수두, 대상포진 등을 개선시킨다. 정서적으로 유칼립투스는 기분을 상쾌시키며 활력과 자극을 주는 기능을 한다.

3) 주의

고농도로 사용하면 신장을 자극할 염려가 있으며 고혈압, 간질 환자는 사용을 금한다.

5. Lavender (라벤더)

- Scientific name : Lavandula angustifolia
- Family: Labiatae(꿀풀과)
- Plant Part : flowering top(꽃 부위)
- Note: Middle
- Country of origin : France
- Extraction Method : Steam Distillation(수증기 증류법)
- Principal Components : linalyl acetate, linalool



1) 유래

라벤더는 프랑스어로 '씻다'를 의미하는 'Lavare(라바레)'가 어원이며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릴렉스 향이다. 라벤더는 그 효능이 다양하고 쓰임새가 많아 에센셜 오일의 '약방의 감초', 또는 '만능 에센셜오일'이라고도 불린다. 심신에 안정을 주어 릴렉스시킬 뿐만 아니라 숙면을 도와주는 향으로 유명하며, 가장 내 응급 상황 시 필요한 첫번째 오일이다.

2) 특징

에센셜 오일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라벤더는 심신의 조화로 건강을 유지시키고 진정, 진통, 정화, 항균력 작용을 한다. 항바이러스, 항박테리아 작용으로 초기의 감기, 독감에 유용하며 진통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근육 경련, 류마티즘, 근육통 등에도 효과적이다. 심리적 진정작용으로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불면증, 두통 등을 개선시키기도 한다. 또한 라벤더는 소화불량, 위장염 등의 소화기 질환을 비롯해서 생리주기 조절, 생리통 완화 등 생리장에도 도움을 주며 살충제로 해충의 박멸에도 사용된다. 피부에 작용해 세포 성장을 촉진시키고 피지 분비를 균형적으로 조절하며 발부, 항염 등의 효과까지 있어 여드름, 피부염, 습진, 무좀, 창상, 종기 등 다양한 피부질환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천연허브 모기퇴치스프레이 만드는 방법>

① 솔루블라이저 3g을 계량한다.

② 시트로넬라오일 30방울, 레몬그라스오일 10방울, 제라늄오일 5방울, 유칼립투스 오일 3방울, 라벤더오일 8방울, 레몬오일 4방울을 떨어뜨리고 50번 정도 섞어준다.

③ 식물성에탄올 15g, 정제수 30g을 넣고 잘 혼합한다.

④ 용기에 담고 스티커를 붙이면 완~성~!

이제 모기퇴치도 허브에서 추출한 천연 에센셜오일을 활용해서 하세요!!!

정원을 꾸꾸는 사람들

글 사진 우정아

파주
정원 맑음

유선상(59), 엄기숙(54) 가드너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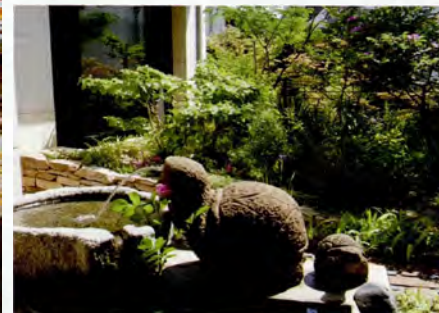
파주 타운하우스 내에 조성된 유선상, 엄기숙 가드너 부부의 맑음 정원은 25여평(83m²) 정도의 정원에 소나무, 단풍나무, 해당화, 자귀나무, 델팽나무, 겹벚꽃, 자작나무, 히어리, 조팝, 만병초, 노각나무, 매실나무, 쪽동백, 목단, 장미류, 철쭉, 화살나무, 인동 등의 목본류와 붓꽃류, 고사리류, 맥문동, 패랭이류, 삼지구엽초, 평의 비름, 그라스류, 은쭉, 옥잠화, 비비추, 실유카, 빈카, 원추리, 수선화, 튜립, 물싸리, 노루귀, 평의 다리, 물망초, 무늬 동굴레 등의 초본류가 식재되어 있다. 구조는 양지 정원과 음지 정원으로 식생이 구분되어 조성되어 있으며, 그 사이로는 연못과 락가든 플랜트 박스로 경계를 두어 개인 공간과 외부 공간과의 시선을 어색하지 않게 차단하고, 그 사이로 통로를 두어 자연스러운 동선을 만들어 디소 답답함이 있을 수 있는 공간에 수공간을 두어 청량함을 귀로 전한다. 6년 전 터를 잡고 정원을 조성한 주인공은 정원은 무조건 편안해야 한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정원을 조성했다고 한다. 이주하기 전에 오랜 아파트 생활에서도 실내정원을 조성하면서 정원에 대한 꿈이 있었던 그들은 정원에 대한 그림이 가슴속에 있었기에 정원을 조성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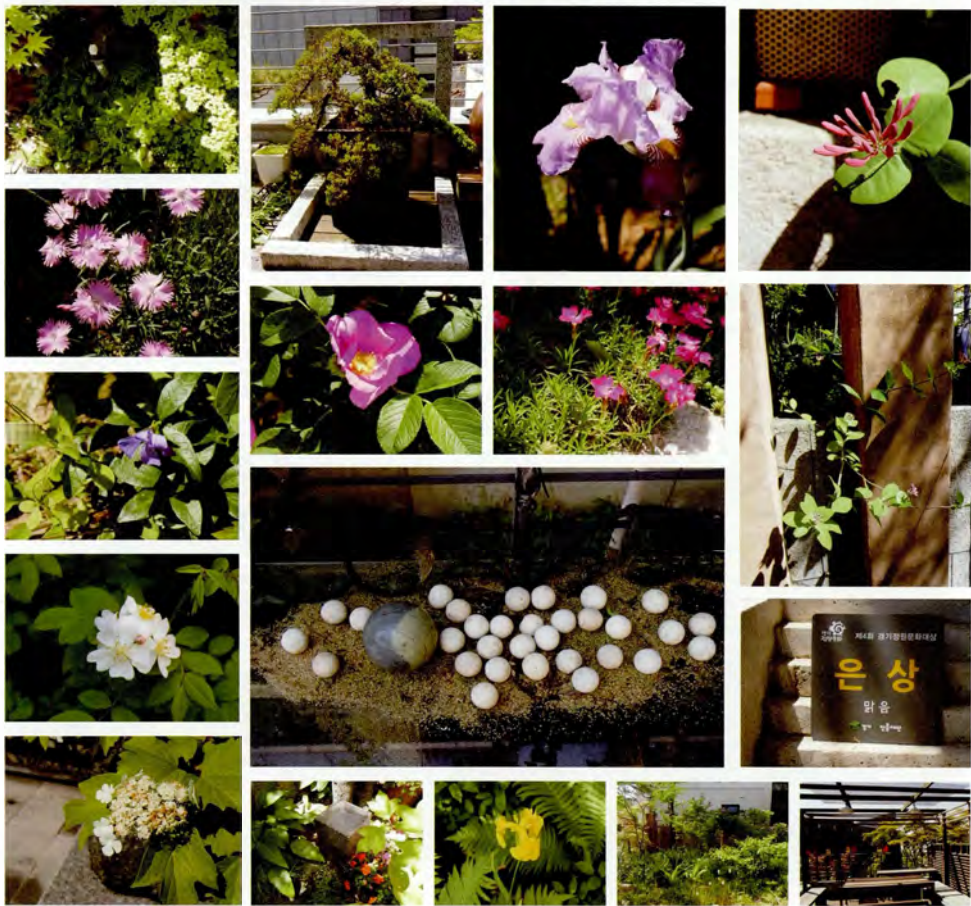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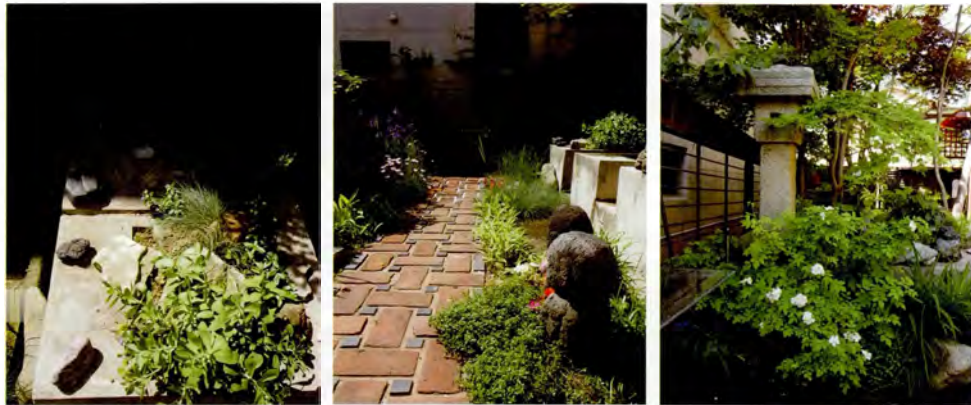
타운하우스라는 똑 같은 공간들이 있는 곳에서 평평한 정원을 경사지로 만들어 토심을 깊게 해 큰 나무를 심고, 데크로 되어 있던 1층



주차장 지붕공간의 배란다를 없애고 파주석을 이용해 결대로 축대를 경사지게 쌓고, 수로를 만들어 창 바로 앞까지 정원을 확장시켜 집안까지 연결된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일괄적으로 된 철골구조의 울타리를 없애고 몰타르 반죽을 이용해 문인석 모양을 형상화, 단순화 한 토분 느낌의 열주 모양으로 울타리를 만들고, 기존의 울타리에 색유리로 스테인드글라스와 같은 느낌을 주었고, 조각가인 누이의 작품을 정원의 조형물로 배치하고, 길을 카펫 무늬를 단순화 시켜서 벽돌과 대리석으로 이어 붙이고 그 가장자리로 키가 작은 꽃들과 글라스류를 식재했다. 또 옆 집에 식재된 자작나무도 보여지는 면이 이 집 쪽이라 양해를 구하고 남의 집 뒤 마당에 식재를 해 주었다고 한다. 집 뒤쪽으로 자투리 공간에는 용기를 이용해 텃밭을 꾸며서 제철 채소를 재배하고, 그 주변으로 야생화와 음지 식물을 식재하여 보기 싫은 공간을 가려 주고, 한옥 문틀을 이용해 파티션을 만들어 운치가 있는 공간과 함께 정원용 풀, 비료 등을 넣어 두는 소형 수납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버려지는 공간 없이 모든 공간이 활용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정원의 조명도 인상적이었는데, 주인공의 손을 거쳐간 것이라 한다. 철물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철판을 접어 일반 등에 씌우면 구멍이 있어 그 사이로 새어 나오는 빛으로 그림자가 있는 조명으로 탄생하고, 특이한 색깔의 유리병을 사서 씌우면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고 한다.





정원을 조성하면서 잘 했다고 생각한 것은 2층 작업실에서 붉은 단풍을 보고 싶은 생각에 큰 나무를 식재 후 밑에 식생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양치류의 식재가 만족스럽다고 한다.

손도 안가고, 번식도 잘 되며, 계절마다 색깔이 다르고 같은 초록색인데도 눈이 편안하다고 한다. 반면 시행착오로 손을 놔버렸던 경험도 있었다고 한다. 양치 식물 정원에 길 옆으로 잔디를 식재했다가 깎기도 힘들고, 깎다가 지쳐서 포기해 버리고 자연의 섭리에 맡겨버렸다고 한다.

또 나무들이 키가 작을 때는 물랐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 점차 서양정원의 느낌이 더 도드라져 소나무만 덩그러니 다른 느낌을 하고 있는 듯하나,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의 날씨의 특성상 소나무가 없으면 너무 볼 것이 없는 앙상한 겨울 정원이 되어 버리는 특성상 겨울의 운치를 버리지 못하는 고민을 하고 있는 중이라 한다.

어떻게 정원을 조화롭게 할 것인가가 지금도 숙제이고, 앞으로의 숙제라고...

“정원을 하면서
아파트에서는 달고 살던
감기 한번 앓은 적이 없어요.
아들의 아토피 피부도 좋아졌고요.

자연의 고마움이겠지요.

무엇보다 이 정원은 새들의 노래가
하루도 쉬지 않는 새들의 놀이터입니다.
조형물로 세워 놓은 항아리에 퐁장군
새 생명이 태어나 식구 수를 불려서
이사 가고, 더운 날이면 까치가 날아와
연못에서 목욕하고, 이른 아침 직박구리는
물을 마시러 들렀다 가요.

산비둘기들은 눈 내린 겨울 먹을 것이 없으면

정원에 들러 먹을 것을 달라고

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연못의 물을 맑게 하고,
겨울이면 먹을 것을 조금 준비해 두고
기다림을 즐깁니다.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정원이 있어서 항상 우리 가족의 마음은
맑음입니다.”



힐링원에

글 사진 김혜숙(신안대학교 가든스쿨 교수 / 실내원에 및 힐링원에 저자)

뜨거운 태양이 타오르는 무더운 여름에 어울리는 수경재배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흙을 사용하지 않고 물로만 식물을 재배할 수 있어 시원함과 청량감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집안에 꾸민 물이 있는 작은 정원으로 이 여름을 조금이나마 시원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Chapter 6. 물이 있는 정원이야기

수경재배의 이점

- ① 물주기의 번거로움이 없다.
- ② 흙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깨끗하고 간편하다.
- ③ 실내 습도를 유지시킬 수 있다.
- ④ 뿌리 생육 상태를 관찰할 수 있다.

수경재배에 적절한 식물

- ① 초 화 류 : 여름에 꽃이 피는 초화류 중에서는 물속에서 생장력이 강해 뿌리가 내려 잘 자라는 콜레우스(coleus), 메리골드, 코스모스, 한련화, 아게라툼(ageratum), 임파첸스(impatience), 꽃베고니아 등
- ② 구 근 : 구근 내에 양분이 많고 꽃눈(花芽)을 가지고 있는 추식구근으로는 히아신스, 크로커스(crocus), 수선화, 무스카리(muscari), 톨립, 오르니소가룸(ornithogalum) 등
- ③ 관엽식물 : 줄기를 잘라 물 속에 넣는 것만으로도 뿌리가 잘 내리며, 음지에 강하고 수분을 좋아하는 것으로 아그로네마(aglaonema), 스킨다브스(scindapsus), 싱고니움(syngonium), 드라세나(dracaena), 페페로미아, 셀렐(selloum), 디펜바키아, 아자유, 달개비, 접란 등
- ④ 채 소 : 고구마, 양파, 토란, 미나리, 무, 아보카도, 적색콜라비 등
- ⑤ 다육식물 : 에키베리아, 바위솔, 십이지관 등

수경재배의 종류

공기와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다공질인 하이드로볼, 적목토, 숯, 바크 등의 재배법이 있다.

- ① 물 속 재배
- ② 하이드로볼 재배
- ③ 자갈 재배
- ④ 숯 재배

식물을 고정하는 재료

식물을 지탱하고 장식하는 유리구슬, 해목(바다에서 건진 나무), 훈단, 하이드로볼, 자갈, 모래, 크리스탈소일 등

수경재배 만들기



- ① 식물의 뿌리에서 흙을 떼낸다. 뿌리와 흙을 분리하기 위해서 식물 뿌리를 하루 정도 물에 담가 불순물을 제거한다. 용기 일부 분에 제오라이트 또는 숯, 맥반석, 펄라이트 등을 1cm 정도 깔다.



- ② 시페루스와 워터코인을 넣고 나무젓가락을 이용하여 뿌리를 사방으로 펼친다.



- ③ 맥반석을 넣어 식물을 고정한다.



- ④ 물을 뿌리 길이의 2/3 정도 채운다.

수경재배 관리법

- ① 물주기 : 뿌리가 완전히 잠기면 호흡을 할 수 없어 뿌리 길이의 1/3은 공기에 닿게 하여 공기충을 만든다. 여름에는 물의 온도가 높아지므로 주 1회 갈아주고, 겨울에는 월 1회 갈아준다.
- ② 광선 : 강한 광선은 물의 온도를 높여 뿌리를 상하게 하므로 반직사광선에서 재배한다.
- ③ 온도 : 알맞은 온도는 20~25℃가 적당하다.
- ④ 비료 : 뿌리에 직접 닿기 때문에 액체비료를 월 1회 2,000배액으로 준다. 단, 심은 뒤 1개월 후에 줘야 한다.
- ⑤ 번식 : 보통 식물 생장기인 봄~가을에 실시하며, 줄기를 자른 관엽식물인 경우 특히 장미철 고온다습한 환경에서는 더 빨리 뿌리를 내린다. 관엽식물을 자를 때에는 저녁 때가 좋다. 낮에는 광합성 작용으로 잎에서 만들어지는 탄수화물이 저녁 때가 되면 잎에 저장되어 있어 자른 부분을 물 속에 넣으면 잎에서 줄기 또는 뿌리로 탄수화물이 이동하여 뿌리가 빨리 내린다.
- ⑥ 세척 : 유리 용기에 햇빛이 닿으면 이끼가 생긴다. 직사광선을 좋아하는 식물보다는 반직사광선~약광선에서 자라는 식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색상의 크리스탈소일에 심은 그린볼



무늬머위 등 여러 가지 식물을 돌과 함께 이중용기에 구성한 작품



물도란을 색들로 고정한 수경 재배



크리스탈소일에 심은 드라세나산데리아나



크리스탈소일에 심은 석창포, 시페루스, 워터코인

식물원 탐방



향기로운 허브의 세계로

상수 허브랜드

글 사진 우정아



충북 내륙 세종시 근교에 위치한 상수허브랜드는 30,000여 평의 농원에 1,000여종의 허브가 식재 되어 있다. 허브 중에서도 쉽게 보기 어려운 수령이 20~30년 된 월계수 나무, 올리브 나무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상수로즈마리, 무지개의 수피가 아름다우며 벌레 퇴치에 탁월한 레인보우 유카리투스, 등 특이한 수종들이 있다.

식자재 무역업을 하던 이상수 회장은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외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향신료를 구해 달라는 거래처 호텔의 부탁으로 자연스럽게 허브를 수입하게 되고, 행사가 끝난 후 수입했던 고가의 허브가 식재료로 팔리지 않자 식재하여 기르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상수허브랜드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한다.

입구를 들어서면 대형 유리 온실 4개 등에 월동이 되지 않는 허브를 바닥, 벽, 천장에 식재하여 4계절 즐길 수 있게 했고, 외부로 나오면 길을 따라 월동이 되는 허브 종류들이 노지에 식재되어 있으며, 월동이 되지 않는 종류라도 실내와는 다른 색깔로 빛을 발한다. 맨발로 걸어가면 효과를 본다는 타임 카펫과 울미를 지나면 수생식물과 함께 허브 용궁이 나오는데, 20년을 넘게 이곳에서 살고 있는 철갑상어

와 그 외에 다양한 민물어류들을 만날 수 있다. 처음에 식용으로 들어온 것으로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맞지 않아 관상용으로 지금까지 기르고 있는 것이라 한다. 허브용궁에는 채송화, 붓꽃과 함께 민물 새우, 우렁이, 다슬기 등 7단계의 정수 과정을 거친 계곡의 물이 유입되어 그 물이 다시 정수 과정을 거쳐 계곡으로 되돌아 간다. 익자 바위, 고추 공룡 등 특이한 모양의 바위들을 지나 동글동글한 입들이 모여 동굴을 만든 으름덩굴의 긴 터널을 지나면 천년의 세월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천년송과 함께 도룡폭포의 시원함도 느낄 수 있다.



상수허브랜드에서는 도라지 효소엑체비료 미생물약 조제를 통해 친환경 농사법을 이용하여 인체에 무해한 자체 상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어서 물, 차, 비누, 찜질팩 등 체험하는 재미도 쏠쏠하다. 특히 일본 국제 꽃 박람회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새싹 채소와 식용 꽃, 허브를 곁들인 장국, 물김치로 차린 꽃밥은 꽃 잎으로 연지 곤지 새색시 퍼포먼스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다.



충주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부용외천리 18길 / 043-277-6633

www.sangsooherb.com

|가든인 칼럼|

암석, 옥상 등 극건조 대표식물 세덤류의 적절한 적용

글 사진 서준혁



세덤류는 세계적으로 약 400여종이 존재하며 근래에는 옥상조경용으로 중요한 소재로 널리 활용되어지고 있다. 물을 가지고 있는 유조직이 발달하여 건조에 강하기 때문에 물관리가 필요없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옥상조경은 물론 도로중앙분리대, 골프장 암사면 등에 적용하면 좋으며 일반 식물이 건조피해로 인해 생육이 불량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반면에 물빠짐이 좋지 않는 곳에 식재하게 되면 장마기에 녹아내리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반드시 배수가 좋은 곳을 선택해서 식재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내자생종으로는 기린초, 섬기린초, 큰평의비름, 땅채송화, 바위채송화 등이 대표수종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고 도입종 또한 많은 종류가 있어 조경현장에 이용되어지고 있다.

먼저 형태, 생태적으로 세덤류를 분류해보고 현장에서 적용과 적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짚어보도록 하자.



형태, 생태적 특성

보통 세덤을 암석식물 혹은 옥상식물 등으로 표현하고 적용하지만 잘못 적용하면 일시에 고사하는 종들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세덤종류를 형태적으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고 따라서 적용방법도 찾을 수 있다.

1. 다람쥐꼬리세덤, 애기세덤, 블루애기세덤(키 3~5cm)

겨울에 상록이며 이끼와 같이 잎이 작고 식물체 전체는 큰 매트를 형성하는 그룹으로 내한성과 지피력 그리고 회복력도 빠른 종류이다.



애기세덤



다람쥐꼬리세덤



블루애기세덤



블루애기세덤

2. 흰꽃세덤, 단풍세덤, 블루솔세덤(키 5~10cm)

겨울상록성을 유지하며 생육이 빠르고 포복성의 매트형 종류로 이들은 대체로 5~6월에 개화하고 그 후 정마철을 시작으로 일시에 녹아 불봄이 없어지거나 죽어 일부 줄기를 남기고 가을이 되면 다시 생장을 시작해 겨울을 나는 형태로 이들을 너무 군식하는 방법은 피해야 한다.



단풍세덤



블루솔세덤



청동세덤



흰꽃세덤

3. 금강애기기린초, 백두산애기기린초, 상록애기기린초(키 10~20cm)

이들은 포기를 형성하는 식물로 포기자체를 길러 매트를 형성한다. 국내조건에 잘 적응한 종류들로 생육이 매우 강건해 매년 좋은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나 너무 부리가 비대해지거나 물빠짐이 나쁜 곳에서는 뿌리썩음현상이 있을 수 있다.



금강애기기린초



백두산애기기린초

4. 파란잎평의비름, 붉은애기평의비름, 둥근잎평의비름(키 20~30cm)

이들은 대체로 잎이 적자색을 띄고 있으면서 반포복성으로 낙엽성식물이지만 포기를 형성하고 강건해 매년 좋은 포기를 형성한다.



붉은애기평의비름



파란잎평의비름

5. 큰평의비름 '만추', 노란줄무늬평의비름(키 40~60cm)

이 종류들은 대형포기를 이루는 커린 세덤으로 생육이 강건할 뿐만 아니라 대체로 일반지 혹은 반음지에서 생육이 좋아 건조지, 혹은 옥상 정원 등에도 잘 적용하지만 혼합식재 등에도 자주 이용된다. 특히 큰평의비름 '만추'의 경우 2~3년만 경과하면 매우 크고 좋은 포인트 식물로 적용가능하고 암석가든의 필수품종이다.



큰평의비름 만추



노란줄무늬평의비름



노란줄무늬평의비름



큰평의비름

현장에서의 적용

1. 옥상정원 등 대면적 식재

세업은 종류에 따라서 특성이 매우 차이가 있으므로 품종선택이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면적 식재시에는 형태적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겨울상록성 종류는 대부분은 포복성으로 봄에 개화를 하는데 이들의 특성은 여름에 약해지는 현상이 있다.

포복형과 포기형성형 종류를
적절하게 혼합해서 적용해야
좋은 경관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포기형성형은 주로 여름에 꽃을 피우며 봄부터 가을까지 강건하게 자라지만 낙엽성이다. 그러므로 포복형과 포기형성형 종류를 적절하게 혼합하여 적용할 경우 전체적으로 겨울상록 유지는 물론 봄 개화이후 일시 쇠퇴하는 현상 등을 보완할 수 있어 효율적인 경관연출이 가능하다.



2. 락가든, 돌틈식재

락가든에 빠질수 없는 필수소재로 전체 면적에 골고루 한두포기씩 모아 식재하고 2목이하의 작은 석축사이의 돌틈식재에도 매우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락가든〉



〈돌틈식재〉



우리꽃연구소
URISEED LAB
전화. 031.634.7990



클로버 초콜릿 햄백
향백과 향운을 동시에 드립니다

하늘국화 금방석
금나리라 독래
금방석을 드립니다

2016년, 정원을 위해 계획하고 계신가요?
우리꽃에 문의 하십시오.

이젠 우리 정원에 맞는 신제품입니다.

"장기개화용" 봄부터 가을까지
쭉~핍니다!! 비료만 듬뿍!!

코레우리 우리드림시리즈, 하디시리즈, 골든볼시리즈, 링시리즈, 텅커벨시리즈
아니 릴~수, 릴~수, 이럴 수 있는거야?
5월에서 11월까지 숨도 쉬지 않고 피워대는 꽃구름 꽃향기



에키네시아 레인보우
천상의 화색 5월부터 11월까지
어찌 그리 고울까요?



상록잔디패랭이
4월에서 11월까지 끝내준다.
순천정원박람회 바로 그 주인공



하늘국화
블루, 하양, 큰꽃, 애기별하늘국화
꽃방석, 말해 위해 봐야 알지
4월에서 11월까지 꽃방석인지
확인하면 바로



가우라
베이비레드, 베이비핑크, 베이비골드트리
나비가 날았을까? 잠자리가 앉았을까?
5월에서 11월을 놓고 앉아 꽃피우는

정원으로의 여행 16

글 사진 가든디자이너 서수현
현 가든디자인스튜디오 대표
영국 에섹스 대학교 가든디자인 컨설턴트 및 조경 석사
친안연임대, 건국대 정원관련 강의 및 정원멘토로 활동



정원과 어울리는 건축물들

정원은 어떤 공간에 만들어 지는 것일까?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고 휴식하기 좋은 공간에 만들어 진다. 대부분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 가까이 만들어 지는 경우가 많은데 서로 분리된 공간이기 보다 어울려 질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정원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에서는 정원이 조성 될 때 대부분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야 정원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을 한다.

기존에 만들어 졌던 정원을 리모델링 할 경우를 제외하고 새로 산 부지에 건축 디자인이 만들어 질 경우 정원 디자인을 함께 고민해 본다면 건물과 잘 어울리는 정원을 만들 수 있다. 선호하는 정원의 디자인과 식물들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건축물의 스타일에 따라 정원의 스타일도 같이 갈 수 있어야 전체적 공간이 아름답게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원이 유명한 유럽이나 아가자기하고 스타일이 뚜렷이 보이는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여러 가지 정원의 스타일이 나타나기 보다 자신들이 정원을 만드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이루어 졌을 때 제대로 된 정원이 만들어 진다. 나라마다 혹은 시대별로 특징적인 정원의 스타일들이 나타나는데, 르네상스 시대의 이탈리아 정원, 17세기 평면기하학적인 프랑스 정원 그리고 18세기부터의 영국 풍경식 정원이 발전되어 왔고 건축물의 스타일에 따라 영국의 코티지가든, 이탈리아의 노단식정원, 일본의 다도를 즐기 위한 다정원등이 이에 속한다.



Cottage garden - 앤 해서웨이의 코티지 가든. 영국의 전통 가옥스타일 중 하나인 코티지하우스 앞 뜰에 꾸며지는 정원 스타일로 코티지는 중세시대부터의 주택 구조로 농부들이 살던 집이다. 앞 뜰에는 다양한 초본류의 식물들과 텃밭이 어우러지는 카친가든이 만들어져 있다



Chatsworth -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조지 오만과 편견의 배경으로 쓰였던 곳. 영국 Derbyshire에 위치하고 있으며 11세기부터 존재하기 시작하여 15세기때 새롭게 재건하여 1608년 케번디시 가문의 첫 번째 Devonshire 데번셔 공작이 구입하여 지금에 이른다. 이 가문은 16세기 이래 잉글랜드에서 가장 부유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강한 귀족 가문으로서 현재 영국 왕실의 여왕인 엘리자베스 2세 모후인 엘리자베스 왕후의 선조이기도 하다 - 굉장한 규모의 귀족의 저택 주위로 여러 테마의 정원이 만들어져 있다. 식물원 하나를 옮겨온 것 같은 온실, 자연석을 이용하여 만든 락가든, 미로정원과 루피너스로 꾸며놓은 정원 등이 있다. 건축물들과 어울리는 들을 이용한 공간들이 눈 여겨 볼 만 하다. 정원에 얹혀져 있는 돌 계단의 모습과 화단의 디자인은 건축물과 잘 어울린다.



정원에서 쓰인 재료들 - 계단이나 비탈 면에 식재를 할 때 건물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오래되어 보이는 벽돌, 계단석, 포장돌 등은 색이나 모양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잘 어울릴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현대에 어울릴 만한 정원 스타일은 어떻게 찾아나가야 할까?

전통적인 정원의 스타일이 이 시대의 정원으로 완벽할까? 아마도 전통적인 정원은 전통가옥이 만들어진 곳에 있을 때 빛을 발한다.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주택의 형태나 건물의 스타일은 모던하고 서양화 되어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원 스타일도 그에 맞게 변화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 매년 열리는 영국의 첼시플라워쇼를 보면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정원이 선보인다.

영국의 대부분의 주택 형태는 건물 앞과 뒤에 조그만 정원을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쇼가운데서 선보여진 정원들을 모티브로 하여 일반 가정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박람회에서도 우리 주거형태에 맞는 한국정원의 스타일들이 선보이고 발전해야 한다.

'정자와 방지 그리고 담 옆에 화단'만으로 꾸며지는 정원이 아니라 시대별로 정원을 만들어 보아도 좋을 것 같다.

조선시대 그리고 우리에게 아름이지만 기억되어야 할 일제시대 그리고 현대에서도 6,70년대 복고풍을 가진 정원, 현대에 어울리는 모던한 정원 스타일들과 아파트에 어울리는 소규모 베란다 정원까지. 우리도 만들어 내야 할 정원 양식들은 많을 것 같다.



이번 2016 코리아 가든쇼에서 그 첫걸음을 내딛었다. K-garde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품 공모를 하였는데 10개의 작품이 선정되어 전시를 하였고 나는 그 중에 현대 정원으로 재 해석한 작품을 출품하였다. 컨셉을 잘 보여주는 정원도 있었고,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 정원도 있었다. 하지만 정원을 만들 공간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에 아름다운 정원이란 언제까지 만들고 싶지만 만들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박람회들이 많이 만들어 지겠지만 현대 주거 생활을 고려한 정원들이 더 많이 보여졌으면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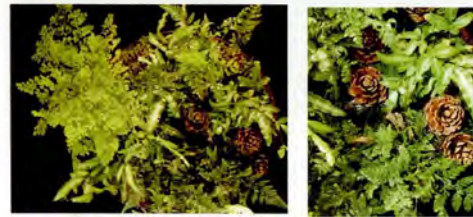
'내안의 아름다움- 단청' - 병서정원의 모습을 모던함으로 재해석 해 본 작품으로 앞, 중간, 뒤틀로 구성되어 앞과 뒷틀은 자연의 공간 그리고 중정은 인간의 인위적인 공간을 보여준다. 하얀색의 벽들은 기와를 둘러 전통적인 한옥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현대의 건물외 벽으로 여겨지는 부분이기도 하다. 가운데 중정에는 오방색으로 만든 스피커 조형작품이 설치되어 중정을 가늠며 음악과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소리는 새와 물소리를 첨가하여 만든 음악이 흘러나왔다. 전시 작품 속에서 또 하나의 작품을 감상하듯이 갤러리 형태의 정원이다



폐선풍기와 솔방울을 이용한 양치식물 장식물



글 사진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 KHDA(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화장



Material



후마타 (*Davallia mariesii* T. Moore ex Baker)
프테리스 (*Pteris nipponica* W. C. Shieh)
아디안텀 (*Adiantum radicans*)



선풍기에서 망 부분만 해체한다



락카 스프레이를 이용해 원하는 색상을 칠한다.



식물을 식재 할 수 있는 공간을 위해 망을 일정 공간 잘라낸다.



인조 이끼를 물에 충분히 적신 후 아래쪽에 깔아준다.



뚜껑을 고정 시키고 가장자리에도 이끼를 깔아준 후 망을 잘라낸 공간으로 식물을 식재한다.



식물 식재 후 주변에 상토를 넣어 주변을 메워준다.



상토 위 부분을 다시 이끼로 덮어 흠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막아준다.



솔방울을 글루건을 이용해 붙인다.



마끈을 이용해 고정 끈을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

>> 관리법

여름에는 공중 습도가 높아 불쾌한 날이 많지만 양치식물인 고사리에게 좋은 환경이 된다. 건조한 날 분무기를 이용한 관수가 필요하며, 공중 결이의 특성상 이끼가 완전히 마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좋다. 이끼는 보습력이 높기 때문에 양치류 주변을 덮어 주면 식생에 도움이 된다. 건조한 겨울에는 이끼를 전체적으로 물에 담가 물을 충분히 흡수시킨 후 걸어 둔다. 비료는 분무시 액체비료를 희석해서 사용한다.

COLOUR IN THE GARDEN



너무 하얗지도, 너무 검지도 않은 은색은 영어로는 실버 칼러라고 표현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상 가지고 다니는 동전 화폐 중에 10원짜리만 빼고는 모두 은색이고, 나이가 들어 흰머리가 되어 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실버세대 하고 부른다. 그리고 도심 한복판에 가 보면 놀이 솟아 오른 빌딩들에서부터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도심 속 대부분의 건물들은 실버에 가까운 화색이다.

이처럼 은색 즉 실버칼러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중요한 색상으로 자리를 잡고 있으며, 언제 보아도 질리지 않는 친근하면서도 우아한 색이기도 하다. 식물의 어떤 색과도 잘 어울리는 은색의 꽃들(Silver Flowers)의 미술사 같은 힘을 우리 집 정원에도 하나 둘 들여다보자.

오 도

풀무학교생태농업전공부 교사 / 일본 惠泉女學園園藝生活學科에서 화단설계 전공, 전 여미지식물원, 천리포수목원 근무



콩쿨로르전나무 '글라우카 콤팩타'
Abies concolor 'Glaucia Compacta'
소나무과·상록침엽관목
▶ 5월 순 3월, 11월 ↑ 1.5~2.5m



델라바이전나무
Abies delavayi
소나무과·상록침엽관목
▶ 5월 순 3월, 10월 ↑ 3~4m



구상나무
Abies koraiana
소나무과·상록침엽관목
▶ 5월 순 3월, 10월 ↑ 12m



프로케라전나무 '글라우카 프로스트라타'
Abies procera 'Glaucia Prostrata'
소나무과·상록침엽관목
▶ 5월 순 3월, 10월 ↑ 0.5m



레쿠르바타전나무
Abies recurvata var. emmiedi
소나무과·상록침엽관목
▶ 5월 순 3월, 10월 ↑ 12m



아피니시아케나
Acaena affinis
장미과·속근초
▶ 6~8월 순 3월, 10월 ↑ 0.1~0.5m



톱풀 '후테리'
Achillea 'Huteri'
국화과·속근초
▶ 7~9월 순 3월, 10월 ↑ 0.15~0.3m



그레카알칸나
Alkanna graeca
지치과·속근초
▶ 5~8월 순 3월, 10월 ↑ 0.5~1m



코카서스장대 '플로레 플레노'
Arabis alpina subsp. caucasica 'Flora Pleno'
십자화과·속근초
▶ 5~6월 순 3월, 10월 ↑ 0.1~0.5m



크네오롬메꽃
Convolvulus cneorum
매꽃과·상록활엽관목
▶ 6~8월 순 3월, 10월 ↑ 0.5m



아티초크 '드와프 폼'
Cynara cardunculus 'Dwarf form'
국화과·속근초
▶ 7~9월 순 3월, 10월 ↑ 0.3~0.5m



드루몬디담자리꽃
Dryas drummondii
장미과·속근초
▶ 5~7월 순 3월, 10월 ↑ 0.5m



하이브리드에케베리아 '라운드 림'
Echeveria hybrid 'Round leaf'
돌나물과·속근초
▶ 월 순 3월, 10월 ↑ 0.1~0.2m



레펜스엘라토스테마
Elatostema repens var. repens
쑥가풀과·속근초
▶ 월 순 3월, 10월 ↑ 0.1~0.2m



아메티스티눔에린기움
Eryngium amethystinum
산형과·속근초
▶ 6~9월 순 3월, 10월 ↑ 0.5m



마리티눔에린기움
Eryngium maritimum
산형과·속근초
▶ 6~9월 순 3월, 10월 ↑ 0.2~0.6m



에린기움 종류
Eryngium sp.
산형과·속근초
▶ 6~8월 순 3월, 10월 ↑ 0.8~1m



바리폴리움에린기움
Eryngium variegatum
산형과·속근초
▶ 7~8월 순 3월, 10월 ↑ 0.5m



쥐손이풀 종류
Cerium sp.
쥐손이풀과·속근초
▶ 6~8월 순 3월, 10월 ↑ 0.5m



헬리안테움 '헨펠드 브릴리언트'
Helianthemum 'Herfeld Brilliant'
시스투스과·속근초
▶ 5~7월 순 3월, 10월 ↑ 0.5m



스카디움헬리안테움
Helianthemum scaberrimum
시스투스과·속근초
▶ 5~7월 수 3월, 10월 ↑ 0.5m



페티올라헬리크리섬 '바리에가툼'
Helichrysum petiolare Variegatum
국화과·속근초
▶ 5~7월 수 3월, 10월 ↑ 0.1~0.5m



페티올라헬리크리섬
Helichrysum petiolare
국화과·속근초
▶ 7~10월 수 3월, 10월 ↑ 0.5~1m



은썩
Artemisia schmidiana
국화과·속근초
▶ 7~8월 수 3월, 10월 ↑ 0.3~0.5m



마로모라타리투스
Lithops marmorata
국화과·속근초
▶ 10~11월 수 3월, 10월 ↑ 0.1m



올리브나무
Olea europaea
물류레나무과·상록활엽교목
▶ 7월 수 3월, 10월 ↑ 15m



에네아필라사랑초
Oxalis enneaphylla
괭이발과·속근초
▶ 5~7월 수 3월, 10월 ↑ 0.3m



페르폴리아타파라헤베
Platanus perfoliata
현상과·속근초
▶ 6~8월 수 3월, 10월 ↑ 0.5~0.8m



빌로숨수크령
Pennisetum villosum
벼과·속근초
▶ 6~7월 수 3월, 10월 ↑ 0.5~1m



은청가문비 '글로보사'
Picea pungens
소나무과·상록침엽교목
▶ 4~5월 수 3월, 10월 ↑ 0.5~1m



스피놀로사가문비
Picea spinulosa
소나무과·상록침엽교목
▶ 4~5월 수 3월, 10월 ↑ 40m



오르테다플리방아풀 '우본고'
Platanus acerifolia
꿀풀과·속근초
▶ 1~3월 수 3월, 10월 ↑ 0.1~0.5m



칼라브라양지꽃
Patentia calabra
장미과·속근초
▶ 5~7월 수 3월, 10월 ↑ 0.5m



슈도그나팔리움
Pseudognaphalium microcephalum
국화과·속근초
▶ 9~11월 수 3월, 11월 ↑ 0.3m



차매시파리수스산틀리나
Santarina chamaecyparissus
국화과·속근초
▶ 6~8월 수 3월, 10월 ↑ 0.5~1m



바위솔 '실버 스프링'
Sempervivum 'Silver Spring'
돌나물과·속근초
▶ 7~8월 수 3월, 10월 ↑ 0.1m



백묘국
Senecio cineraria
국화과·1년초
▶ 7~8월 수 3월, 10월 ↑ 0.5~0.8m



하설초
Serotium lomentosum
석죽과·속근초
▶ 5~6월 수 3월, 10월 ↑ 0.1~0.5m



비잔티나석잠풀
Stachys byzantina
꿀풀과·속근초
▶ 6~7월 수 3월, 10월 ↑ 0.5~1m



올림피카석잠풀
Stachys olympica
꿀풀과·속근초
▶ 6~7월 수 3월, 10월 ↑ 0.5~1m



파르테나움썩국 '로알라네'
Taraxacum officinale 'Rowallane'
국화과·속근초
▶ 9~10월 수 3월, 10월 ↑ 2m



처진캐나다솔송
Tsuga canadensis
소나무과·상록침엽교목
▶ 5월 수 3월, 10월 ↑ 1.2~1.5m



병꽃나무 '플로리다 바리에가타'
Weigela Florida Variegata
인동과·낙엽활엽교목
▶ 5~6월 수 3월, 10월 ↑ 1.5~2m



프로세라전나무 '글라우카'
Abies procera
소나무과·상록침엽교목
▶ 5월 수 3월, 10월 ↑ 0.5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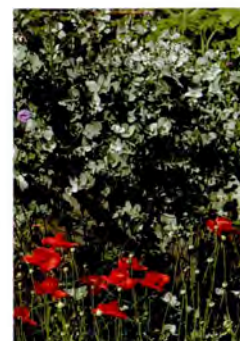
루도비키아나썩 '발레리 핀니스'
Artemisia ludoviciana 'Valerie Finnis'
국화과·속근초
▶ 6~8월 수 3월, 10월 ↑ 0.5~1m



아블라루도비키아나썩
Artemisia ludoviciana
국화과·속근초
▶ 6~8월 수 3월, 10월 ↑ 0.5~1m



브라키트리차산새풀
Colanagrostis brachytricha
벼과·속근초
▶ 7~10월 수 3월, 10월 ↑ 1.5m



곤니유키리
Eucalyptus gunnii
도금양과·속근초
▶ 7~8월 수 3월, 10월 ↑ 0.5~1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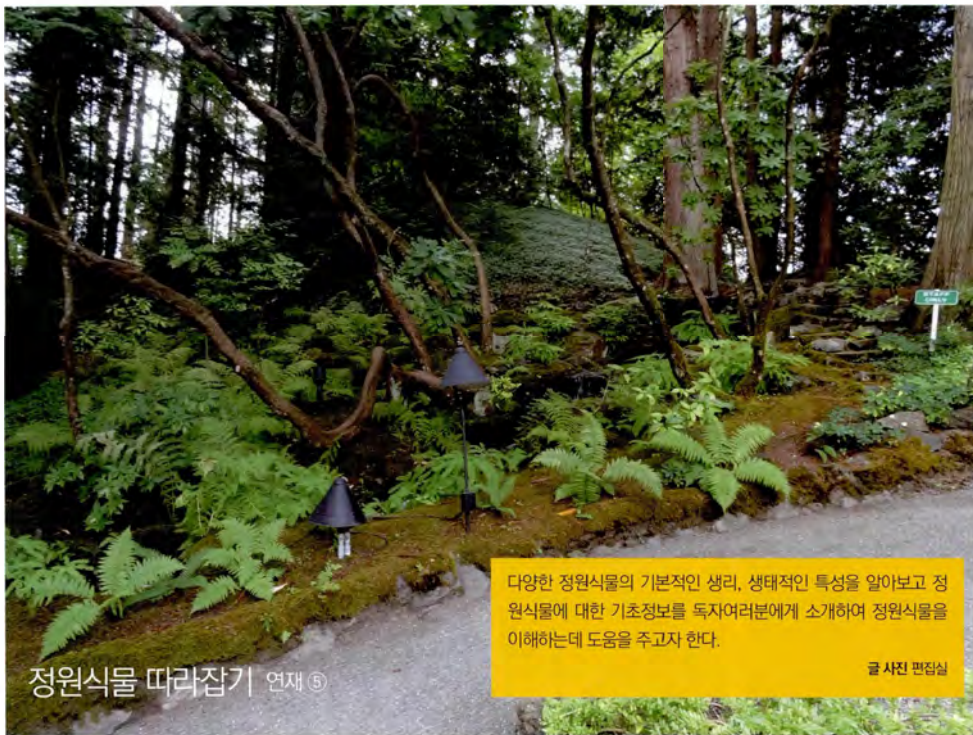
우단동자
Lychnis coronaria
석죽과·속근초
▶ 6~8월 수 3월, 10월 ↑ 0.5~0.8m



레기아메코넵시스
Meconopsis regia
양귀비과·속근초
▶ 6~7월 수 3월, 10월 ↑ 0.5~0.8m



처진버드잎배나무
Pyrus ussuriensis
장미과·낙엽활엽교목
▶ 4월 수 3월, 10월 ↑ 8~12m



정원식물 따라잡기 연재 ⑤

다양한 정원식물의 기본적인 생리, 생태적인 특성을 알아보고 정원식물에 대한 기초정보를 독자들에게 소개하여 정원식물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글 사진 편집실

양치식물

양치식물은 꽃이 피는 식물이 선호하지 않는 축축하고 그늘진 지역을 선호하며, 연중 감상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잎을 가지고 있어 실내용, 또한 일반정원으로 인기가 높은 원예식물이다. 강한 양치식물은 계류 주변이나 숲을 조성할 때 특히 효과적이며, 서리에 약한 열대지역의 양치식물은 멋진 생김새로 온실이나 실내용으로 각광받는다.



관중

양치식물이란?

양치식물이란 엽상체라고 하는 잎과 같은 구조를 가지는 원시적인 식물로서 쇠뜨기, 석송과 함께 관다발식물 중에서 꽃이 피지 않고 무성세대와 유성세대와의 세대교번을 규칙적으로 하면서 무성세대에 포자를 만들어 번식하는 식물 종류를 총칭한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양치식물의 종류는 1만 2,000여종 정도이며, 열대와 아열대에서 주로 자라고 추운 지방일수록 종수가 줄어드는데, 우리나라에는 200여종이 보고되어 있지만 미기록종이 속속 발견되는 추세로 350여종 정도가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생식포자는 포자낭에서 생성되며, 포자가 썩어 트면 전엽체(prothalus)로 자라고 여기에서 암수의 생식기가 생겨서 접합자가 형성되면 잠시 전엽체에서 영양분을 취하지만 곧 뿌리·잎·줄기가 자라서 포자체로 독립한다. 솔잎란류(*Psilopoda*)·석송류(*Lycopside*) 및 속새류(*Sphenopsida*)처럼 비교적 작고 잎이 큰 종류 등을 합쳐서 양치식물이라고 하며 꽃이 피어 종자를 생산하는 종자식물과 더불어 육상식물의 배대를 형성한다. 이것들은 모두 중심주(中心柱)라는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관다발식물 또는 고등식물이라고도 한다.

양치식물의 종류는 다양하며 형태적으로 불과 몇 cm정도로 자라는 것과 몇 m씩 자라는 종류도 있다. 양치식물은 진정한 잎과 뿌리가 없는 송

잎란류, 뿌리가 있고 잎이 나선상으로 배열된 석송류, 잎이 둘러나고 뿌리가 있으며 관절과 능선이 있는 속새류 및 뿌리·잎·줄기가 뚜렷하고 잎이 크며 엽극(葉隙)이 생기는 양치류(*Pteropsida*)의 4개로 크게 나뉜다.



장식적인 특색

우아한 대형형의 엽상체와 녹색의 울창함과 때로는 붉은색, 노란색, 또는 화색으로 변하는 종들로 그 가치는 크게 높다. 엽상체의 밑부분은 은색빛이 돌거나 갈색 비늘이 있다.

서식처 또한 다양하여 넓은 범위에서 종을 선택할 수 있다.

Phlebodium 같이 기는 식물은 포복경이 있어 좋은 지파식물이며, 각 지하경을 따라 간격을 두고 단일 엽상체를 만들어낸다. *Dicksonia*는 직립한 큰 나무줄기같은 뿌리줄기가 있으며, 오래된 엽상체의 임자루 자리에 자국이 남는다. 주의 깊게 선택한다면 연중 정원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대부분 봄에는 잎이 구불거리지 않고 밝은 색을 유지하다가 낙엽성인 경우 늦여름에 시들기 시작한다. 상록인 경우 가을과 겨울에도 그 매력을 유지한다.



재배

양치식물은 서식지에 잘 정착하면 유지 관리가 적게 든다. 가장 선호하는 환경조건은 부분적으로 그늘이 들거나 완전히 깊은 그늘이 드는 지역이다. *Matteuccia*, *Onoclea*, *Osmunda* 같은 식물은 습윤지에서 잘 자란다. *Asplenium*, *Polypodium*, *Polytichum* 같은 식물은 상대적으로 건조한 지역에서도 견딘다. *Asplenium*의 왜성종과 *Cheilanthes*와 같이 사막지에서 자라는 식물은 햇빛이 잘 드는 지역을 더 선호하며, 바

위틈이 가장 좋다. 대부분 내한성종들은 통기가 잘 되고, 부식토층 풍부한 토양인 실내에서 잘 자란다.

토양에 수분이 과도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므로, 흙을 먼저보아 확인한 후에 물을 주어야 한다. 화분에 물이 남아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물받침 등에 물이 고여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공중 습도는 높은 것을 선호한다.

주아와 포자를 통한 증식법



주아

주아가 많이 달린 엽상체를 기저에서 떼어낸다. 트레이에 혼합토양을 넣고 엽상체를 평평하게 고정시킨 후 물을 주고, 라벨링을 한 후 공기를 넣은 비닐 백에 넣고 밀봉한다. 주아에서 뿌리가 나올때까지 따뜻하고 밝은 곳에 둔다. 각각을 6cm포트에 혼합토양을 넣고 기른다.

포자

포자낭에 포자가 가득찬 엽상체를 깨끗한 종이에 넣고 포자를 고른다. 가능한 빨리, 얇게 편 살균된 종자용 혼합토양에 심는다. 전엽체가 나타날 때까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물을 준다. 포자에서 발아하여 전엽체로 될 때까지 기른 후, 각각 따로 포트에 심는다.



청나래고사리

- 가든인 생생정보 -

다목적으로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질경이

질경이(Plantago asiatica)는 집안의 마당이나 길가, 논두렁, 들뜰에서 흔하게 자라는 식물이다. 6~8월에 하얀 꽃이 피어나고 10월에는 흑색의 종의 열매를 맺는다. 질경이는 사람이 걸어나는 길이나 차랑 통행이 잦은 비포장도로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잘 자란다. 시멘트 바닥의 갈라진 틈에서도 자라고, 자동차 바퀴에 짓밟혀도 깨끗하게 살아남는다. 나쁜 환경에서도 질경이가 잘 자란다고 하여 이름도 질경이라고 했다고 한다.

오랫동안 잡초로만 여겼던 질경이가 좋은 약재이며 대체서 나물로 먹으면 맛이 좋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이 안다.

질경이는 훌륭한 약초일 뿐만 아니라 무기질과 단백질, 비타민, 당분 등이 많이 들어있는 나물이기도 하다. 옛날부터 봄철에 나물로 즐겨 먹고 삶아서 말려 두었다가 묵나물로도 먹었다. 소금물에 살짝 데쳐 나물로 무치고, 기름에 볶거나 묵을 끓여도 맛이 괜찮다. 튀김으로도 먹을 수 있고 잎을 날로 씹을 씹아 먹을 수도 있으며 질경이로 김치를 담그면 그 맛과 향이 각별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식량이 모자랐던 시절에 질경이는 구황식품으로 귀히 사용되어 왔다. 그 당시에 몇 년씩 가뭄이 계속되면 봄철에 식량이 부족하여 심한 고통을 받았다. 솔잎이나 소나무껍질을 벗겨 먹기도 하고 산에서 고사리나 죽을 뜯어 연명하곤 했다. 질경이는 가뭄과 뜨거운 피야변에서도 죽지 않고 잘 자라기 때문에 흉년에 연명하기 위하여 많이 먹었다고 한다.

질경이는 이뇨작용, 해독작용이 뛰어나 민간요법에서는 고혈압, 변비, 천식, 관절염, 위장병, 신장염, 신경쇠약 등에 이용되어 왔다. 특히 질경이는 항위염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불규칙한 식습관, 음주,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소화성 위궤양으로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좋은 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대개의 사람들이 참 가지를 모르고 있지만 질경이는 약초로도 매우 훌륭하고 무, 배추처럼 채소로도 한번 활용해 볼 만한 식물이다. 갖가지 공해와 질병으로 찌든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질경이를 약으로 이용하는 방법

1. **만성간염** : 질경이 씨 한 숟가락에 물 200ml를 넣고 물이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달여서 그 물을 하루 세 번에 나누어 마신다.
2. **고혈압** : 그늘에서 말린 질경이 10~20g에 물 반 되를 붓고 반으로 줄어든 때까지 달여서 하루 세 번에 나누어 마신다.
3. **기침, 가래** : 질경이씨 10~20g이나 말린 질경이 10~20g을 물 반 되를 붓고 반으로 줄어든 때까지 달여서 수시로 차 대신 마신다.
4. **어린이의 기침에 잘 듣는다.**
5. **설사, 변비, 구토** : 질경이를 날것으로 생즙을 내어 마신다. 마나리를 같이 넣어도 좋다.
6. **급, 만성 신장염** : 질경이 뿌리와 오이 뿌리를 3:1의 비율로 섞은 다음 물을 반되쯤 붓고 물이 반쯤 줄 때까지 달여서 체로 걸러 피찌거기를 버리고 한번에 한잔씩 하루 세 번 빈속에 먹는다.
8. **부종** : 질경이 씨와 삼주 뿌리 각각 50g에 물 한 되를 붓고 물이 반으로 줄어든 때까지 달여서 하루 세 번 법으로 나눠서 30분 뒤에 마신다.
9. **두통, 감기** : 질경이를 진하게 달여서 하루 세 번 밥 먹기전에 마신다.
10. **관절염** : 무릎관절에, 물이 고이고 통통 부어 오르면 아플때 질경이 20~30g에 물 1되를 붓고 달여서 차 대신 수시로 마시면 좋은 효험이 있다.
11. **숙취나 알코올 중독** : 질경이 뿌리와 이질들 각 10g에 물 반되를 붓고 달여서 마신다.

우리의 반찬

땃밭 작물관리 요령



1. 몇 그루 안되면 지주목을 세워주고 묶어준다.
2. 몇 그랑에 고추나 토마토, 가지 등을 심었다면 중간중간 지지대를 세우고 줄을 쳐서 자라는 속도에 맞춰 두 번이나 세 번 정도의 줄을 쳐줘야 한다.
3. 밑에서 자라 올라오는 결가지를 따주거나 솎아준다.(고추는 두세 개로 갈라지는 가지의 아랫부분) 작물도 튼실해지고 열매도 많이 열린다.
4. 비닐멀칭을 했더라도 고추나 토마토, 가지등은 거름을 주자. 추비 주는 시기는 뿌리가 비오기전에 하면 더 좋다.
5. 상추는 씨를 뿌렸다면 솎아낸다. 너무 쇠지 않도록 관리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6. 끊임없이 올라오는 잡초는 부지런히 제거해줘야 한다.

GARDEN & BOOK

가든디자이너

글, 그림 강해주

삶이 녹아든 지속 가능한 정원을 만드는 사람,
가든 디자이너가 전하는 '정원'과 '정원을 만드는 사람'의 이야기



저자소개

강해주는 '와일드가든디자이너'와 '허클로시'의 가든 디자이너입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를 졸업하고 화가로 활동하던 중, 다차 튜터와 톰 스투어트 스미스의 정원에 매료되어 가든 디자이너의 길로 들어섰지요. 꽃을 주제로 4번의 개인전을 열고, 주택과 상업 공간의 정원뿐 아니라 공공장소 아트 프로젝트까지 폭넓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양 꽃박람회와 국립 수목원 생활 정원 공모 심사를 맡았고, 2012~2014년에 <전원속의 내집>에서 '정원 스토리'를 연재했습니다. 현재 찬안 연명대 가드닝 학과, 가든팁스 가든디자이너 전문가 과정에 출강 중이며, 서초구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꽃은 많을수록 좋다

글 김종미

“네가 정 그 벼랑으로 뛰어내리겠다면 내가 같이 뛰어내릴게.”

소설 《괘이부리말 아이들》의 작가 김종미가 펼쳐내는 감동 에세이.

인천 만석동에 있는 빈민 지역 '괘이부리말'. 저자 김종미는 스물넷에 이 가난한 동네로 들어가 공부방을 차리고 정착하며 괘이부리말 아이들과 공동체적 삶을 가꾸며 산 지 10년이 되었을 때 소설 《괘이부리말 아이들》을 집필했다.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작가는 괘이부리말 아이들을 보살피어 왔고, 딱 30년째가 되는 지금, 소설의 형식이 아닌 자기의 목소리를 그대로 담은 책 『꽃은 많을수록 좋다』를 출간했다.

이 책에는 저자가 '1987년 만석동에 들어와 기차길옆아가방을 시작한 그 처음부터 1988년 기차길옆공부방으로, 2001년 다시 기차길옆작은학교로 바꾼 이야기,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이야기, 교육 이야기, 가난 이야기, 2001년부터 시작된 강화도 농촌 생활까지' 가장 없이 펼쳐 낸다. 또한 그 이야기 속에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이유, 공동체의 꿈, 한국 교육 현실에 대한 비판, 더불어 사는 삶의 의미 등 세상을 향한 메시지도 배곡히 담아냈다.



저자소개

김종미는 1963년 인천에서 태어났다. 20대 시절인 1987년 인천의 가난한 마을 만석동에 '기차길옆공부방'을 열고 정착했다. 2001년 강화의 시골로 이사한 뒤 강화에도 공부방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강화와 만석동을 오가며 아이들을 만나고 있다. 프로그래밍 문화 예술 활동으로 확장되면서 공부방 이름을 '기차길 옆작은학교'로 바꾸었다. 2000년 가난한 아이들과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은 장편동화 '괘이부리말 아이들'로 예비 '좋은 어린이책' 권고 공모에서 대상을 받으면서 작가로 이름을 알렸다. 지은 책으로 동화 『종이방』, 『내 동생 아영이』, 『동반자에 게가 산다』, 청소년소설 『모두 잠깐』, 『조커와 나』, 그림책 『한밤을 지켜라 폭력』, 『모여라! 유랑인형극단!』, 문정현 신부의 삶을 기록한 『다시 길을 떠나다』 등이 있다.

10%
~20%
OFF 인하

정기구독 안내

[구입처]

오프라인 서점
교보문고

광화문점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영등포점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종로 15 타임스퀘어 멀티플렉스 2층
강남점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465 교보타워 지하1, 2층
북동점 :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지하 1층
잠실점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 캐슬프라자 지하1층
인천점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38 이도타워 지하 1층
부천점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연동로 1 부천역사 7층
안양점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311 CGV 1번가 5, 6층
분당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분당퍼스트타워 지하1층
천안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43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3층
대구점 :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86 교보생명빌딩 지하1층
센텀시티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35 신세계 센텀시티 5층
부산역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58 교보생명빌딩 지하 1층
청원역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4 마이우스 빌딩 지하1층
영풍문고 잡실점, 영광도서관(부산), 남포문고(부산), 녹산문고(수원)

온라인 인터넷

교보문고 www.kyobobook.co.kr 알라딘 www.aladin.co.kr

[입금방법]

카드 결제 및 문의사항 : 031-712-7009

무통장입금

예금주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농협 355-0030-2359-03

▶ 입금 후 반드시 주소와 성명을 알려주셔야 배송가능합니다.

[정기구독방법]

1년 16.6% 할인 (100,000원)
2년 20% 할인 (192,000원)

Gardenin

발행처 : 우리꽃영농조합법인
발행인 : 김영채 경희대학교 명예 교수 / 농학박사
박공영 우리씨드(Uriseed)그룹 대표 이학박사
고문 : 이순영 前 함평 농업기술센터 소장
편집인 : 서준혁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진상미로 924번길 87
전화 : 031-712-7009
팩스 : 031-634-7991
전문위원 : 김광두 농학박사 / 前 명성대학교 겸임교수
김광춘 대림원예총모(주)대표
김귀순 (주)그린페이퍼 대표
박신애 건국대 생명환경과학대 교수
안완식 농학 박사 씨드랩대표
우정아 가든 코디네이터 한국원예디자인협회 향원회장
유봉수 솔개그늘 대표
윤정식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 회장
윤평섭 농학박사 / 상록대학교 명예 교수
이정식 농학박사 / 서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이종석 농학박사 / 서울여자대학교 명예 교수
최주년 농학박사
디자인&인쇄 : 워킹카우42 Workingcow42@naver.com
010 7399 5488



국내최초

허브&아로마테라피 교육체험센터 생활의 향기



Since 2006

<주요사업>

허브힐링 건강세미나(기업체, 단체)

- 허브향기로 스트레스를 싸~악 날려버리자!

허브힐링 인성·진로 교육(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 허브힐링을 통한 마음치유와 건강하고 목표가 있는 삶!

- 허브 조향사 진로 교육

허브 & 아로마 교육 체험학습

- 허브비누

- 허브향수(안티스트레스, 집중력 등)

- 허브스프레이(호흡기, 근육 등)

- 아토피 연고, 호흡기 연고, 천연 림밤 등

- 천연 에센스, 스킨, 로션 등 허브 화장품

직영 매장

보광 위닉스파크 블루동 1층
- 허브체험센터, 아로마 캔들하우스

상호 협력기관

대한아로마테라피학회(www.aromatherapy.or.kr)
- 아로마테라피 실용전문교육기관으로 아로마 자격증 발급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죽엽산로 493(고모리 183)
Tel.031-544-7084 Fax.031-544-7086
www.aromainlife.com

우리정원에 가장 활용도가 많은

코레우리 신품종 출시!!



오렌지글로브 Orange globe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5



핑크글로브 Pink globe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3



크림글로브 Cream globe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1



민크 Mink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4



옐로우 Yellow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7



오렌지펄 Orange Pearl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7



화이트핑크 White Pink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9



살몬링 Salmon ring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95



민크 Mink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4



오렌지 Orange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2



핑크 Pink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1



레이시핑크 Lacy Pink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8



버진 Virgin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0



옐로우링 Yellow ring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96



민크 Mink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4



골든볼 Golden ball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6



애플링 Apple ring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34



레몬핑크 Lemon Pink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54



모닝스타 Morning star
품종출원번호 102015000543

코레우리는 우리꽃이 개발한 신품종 정원식물로
일본을 비롯하여 유럽으로부터 로열티를 받고 있는 품종입니다.
위 품종들은 새롭게 개발된 품종들로
2016년도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꽃연구소

구입문의 : 031-634-7990